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ritings, Contents and a Text Comparison of the Seven-character Regulated Verses in *Hyangsansamchebeop*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1. 서론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2.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5. 결론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내용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중 칠언율시 62수를 대상으로 하여 칠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칠언율시의 내용,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텍스트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순으로 살펴보았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율시는 61수는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주급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3수, 권14/3수, 권15/5수, 권16/6수, 권17/3수, 권19/3수, 권20/4수, 권23/1수, 권24/7수, 권25/3수, 권26/3수, 권28/4수, 권34/9수, 권35/4수, 권36/1수, 권37/1수이고, 1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도합 62수이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을 보면, 저작시기는 50대의 저작이 가장 많이 선집되었고, 저작 장소는 주로 낙양, 강주, 장안, 소주, 항주 이었다. 벼슬살이는 저작시기 및 저작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30대에 장안에서 풍유시를 지었고, 40대에 강주에서 풍유시와 한적시를 지었으며, 50대는 장안, 항주, 소주, 낙양에서 비풍유시를 지었고, 60대와 70대는 낙양에서 비풍유시들을 지었다. 시의 내용은 백거이의 일상들이 담겨진 것으로 ‘인물교류’ 28수, ‘감회’ 19수, ‘풍광’ 15수로 3분야의 62수이다.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 A본과 중국의 주급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면,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글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었고,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B본 전교의 주석과 시구의 해석상 A본의 글자가 옳은 경우, 그리고 B본의 글자 뜻이 더 적합한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다. 둘째, B본에 나타나는 전주의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고, 셋째, A본과 B본의 시제목이 다르기도 하고,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었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3년 8월 22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 향산삼체법의 칠언율시,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

<ABSTRACT>

This paper engages in writings, contents and a text comparison of the 62 poems of the seven-character regulated verses, which appear in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It will explore three themes in the following order: i) the composition, selected works and writing-related matters of the *Hyangsansamchebeop* poems; ii) the contents of the *Hyangsansamchebeop* poems; and a text comparison of *Hyangsansamchebeop* poems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白居易集箋校).

61 poems of *Hyangsansamchebeop* were collected in Anthology of Poems by Bai Juyi(白居易文集). *Bai Juyi ji jian jiao* cites that there are 3 poems from Book 13, 3 poems from Book 14, 5 poems from Book 15, 6 poems from Book 16, 3 poems from Book 17, 3 poems from Book 19, 4 poems from Book 20, 1 poem from Book 23, 7 poems from Book 24, 3 poems from Book 25, 3 poems from Book 26, 4 poems from Book 28, 9 poems from Book 34, 4 poems from Book 35, 1 poem from Book 36, and 1 poem from Book 37. 1 poem did not appear on the Anthology of Poems by *Bai Juyi*(白居易文集). As a whole 62 poems.

The poems included in *Hyangsansamchebeop* show us matters related to the writing of the poems such as the time, place or government post Bai was in when he wrote the works. Bai selected the most works from his 50s and from his writings done in Luoyang, Kangzhou, Changan, Suzhou, and Hangzhou. Bai Juyi w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posts and wrote a lot of poems in his 30s up to 70s; he wrote a satirical poem in his 30s in Changan; a satirical and quiet poem in his 40s in Kangzhou; a non-parody poem in his 50s in Changan, Hangzhou, Suzhou and Luoyang; a non-parody poem in his 60s and 70s in Luoyang. His official life bore close relations to the writing time and place and had a great influence in the creation of the poems. The poems contain scenes of Bai Juyi's everyday life and surroundings with 28 poems fo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19 poems for "Sentiments", and 15 poems for "Scenery". Altogether, there are 62 poems in 3 categories.

A comparison done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Model A), created around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Model B)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original texts of Model A and Model B have differences in letters: there are instances of Model A and Model B having similar Chinese characters so that there are no great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 instances of Model A and B having contrasting letters so tha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ifferences in translation;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A is more correct; and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B is more correct. Secondly, the annotations which appear in Model B complete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Thirdly, the poems in Model A and Model B have the same titles, yet Model B sometimes has different titles for the poems in the anno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most fundamental studies of Bibliography, Chinese Literature, Chinese poetry which includes the study of Bai Juyi's poetry.

Key words: *Hyangsansamchebeop*,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seven-character Regulated Verses of *Hyangsansamchebeop*, *Bai Juyi ji jian jiao*,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1. 서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조선의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 백거이(白居易)의 시집 중에서 오언율시·칠언율시·칠언절구 가운데 185수를 뽑아 세종 27년(1445)경에 편찬하여 간행한 단권본이다. 안평대군이 백거이의 시를 왜 선집 하였는지는 「향산삼체법」 뒤에 붙인 그의 발문에 잘 나타난다. 발문에 의하면,¹⁾ “백거이의 시는 자못 소회를 푸는 맛이 있어 達道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 옛 사람 중에 그 시를 편집한 이가 혹은 養恬²⁾이라 하고 혹은 助道라 했다. [일부 중략] 이 책을 출판하여 이름을 「향산삼체법」이라 하고 달도한 자들과 더불어 읽으려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백거이의 문집은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선집인 「향산삼체법」도 초주갑인자본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고, 후대의 번각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과 이설들이 무성하였다. 필자는 2010년 4월에 중종 10년(1515)경에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 간행한 국내외의 유일본인 「향산삼체법」을 발굴하여 그에 관한 서지적 연구,³⁾ 및 오언율시에 관한 텍스트 연구⁴⁾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향산삼체법」과 관련된 기존의 이설들을 정리하고, 텍스트의 상세한 연구에도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 관본은 국내에서 「향산삼체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1)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頗有遺懷之作 故達道之人率多愛之 古人選錄其詩者 或名曰養恬 或名曰助道 …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庶幾與達道者共之云 乙丑六月匪懈堂書.”

2) 「莊子」 <外篇> 第16 繕性.

“古之治道者 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옛날의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욕심을 끊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지혜를 길렀다. 나면서부터 지혜로써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를 두고서 지혜로써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담담함을 기르는 것이라 말한다].”

3)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4)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저본이지만,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유통된 여러 판본과 내용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 결과의 바탕위에서만 텍스트의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유통된 판본에 대해서는 주금성(朱金城)이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에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으로 전교한 『백거이집전교』를 출간하였다. 백거이 시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 중 칠언율시 62수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 조사 및 내용분석을 통해 칠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을 밝히고, 『향산삼체법』에 실린 칠언율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 및 교감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향산삼체법』 칠언율시의 시 구성은 제73수부터 제134수(제42제-제103제)까지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1>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향산삼체법』 칠언율시 제73수-제134수(제42제-제103제)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73수(15장전면-15장후면)	江樓夕望招客 (陽), 권20(p.1373).	長慶 3(823), 杭州, 杭州刺史.	백거이 52세
제74수(15장후면)	杭州春望(麻), 권20(p.1364).	長慶 3(823), 杭州, 杭州刺史.	52세
제75수(16장전면)	酬哥舒大見贈(東), 권13(p.724).	貞元 20(804), 長安.	33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고』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76수(16장전면-16장후면)	自河南經亂關內阻飢兄弟離散各在一處因望月有感聊書所懷寄上浮梁大兄於潛七兄烏江十五兄兼示符離及下邳弟妹(東), 권13(p.781).	貞元 15(799), 洛陽.	28세
제77수(16장후면-17장전면)	送王十八歸山寄題仙遊寺(灰), 권14(p.800).	元和 4(809), 長安, 左拾遺, 翰林學士.	38세
제78수(17장전면)	庾順之以紫霞綺贈以詩答之(元) 권14(p.808).	元和 5(810), 長安, 京兆戶曹參軍, 翰林學士.	39세
제79수(17장전면-17장후면)	宴周皓大夫光福宅(先), 권14(p.819).	元和 3(808)-元和 6(811), 長安, 翰林學士.	37세-40세
제80수(17장후면)	得潮州楊相公繼之書并詩以此寄之(眞), 권37(p.2557).	會昌 3(843)-會昌 4(844) 洛陽 刑部尚書致仕.	72세-73세
제81수(17장후면-18장전면)	白口阻風十日(眞), 권15(p.943).	元和 10(815), 長安-江州途中.	44세
제82수(18장전면-18장후면)	落雪中頗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尚書(文), 권34(p.2331).	開成 3(839),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83수(18장후면)	江樓月(支), 권13(p.834).	元和 4(809), 長安, 左拾遺, 翰林學士.	38세
제84수(18장후면-19장전면)	認春戲呈馮少尹李郎中陳主簿(尤), 권26(p.1778).	太和 5(831), 洛陽, 河南尹.	60세
제85수(19장전면)	題王處士郊居(刪), 권15(p.949).	元和 10(815), 長安-江州途中.	44세
제86수(19장전면-19장후면)	歲晚旅望(先), 권15(p.949).	元和 10(815), 長安-江州途中.	44세
제87수(19장후면)	晏座閑吟(東), 권15(p.950).	元和 10(815), 長安-江州途中.	44세
제88수(19장후면-20장전면)	醉後題李馬李妓(先), 권15(p.963).	元和 10(815), 江州, 江州司馬.	44세
제89수(20장전면)	庾樓晚望(眞), 권16(p.979).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90수(20장후면)	北樓送客歸上都(齊), 권16(p.987).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91수(20장후면-21장전면)	百花亭晚望夜歸(灰), 권16(p.1008).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92수(21장전면)	寄李相公崔侍郎錢舍人(先), 권16(p.1011).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93수(21장전면-21장후면)	南浦歲暮對酒送王十五歸京(刪) 권16(p.1014).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94수(21장후면)	石楠樹(陽), 권16(p.1022).	元和 12(817), 江州, 江州司馬.	46세
제95수(21장후면-22장전면)	尋郭道士不遇(冬), 권17(p.1070).	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47세
제96수(22장전면)	風雨晚泊(東), 권17(p.1102).	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47세
제97수(22장전면-22장후면)	八月十五日夜溢亭望月(先), 권17(p.1110).	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47세
제98수(22장후면-23장전면)	西省對花憶中州東坡新花樹因寄題東樓(侵), 권19(p.1230).	長慶 元年(821), 長安, 主客郎中, 知制誥.	50세
제99수(23장전면)	蘇相公宅遇自遠禪師有感而贈(支), 권19(p.1285).	長慶 2(822), 長安, 中書舍人.	51세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고』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100수(23장전면-23장후면)	江亭翫春(陽), 권19(p.1297).	長慶 2(822), 長安, 中書舍人.	51세
제101수(23장후면)	悲歌(歌), 권20(p.1374).	長慶 3(823), 杭州, 杭州刺史.	52세
제102수(23장후면-24장전면)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 張員外(陽), 권20(p.1375).	長慶 4(824), 杭州, 杭州刺史.	53세
제103수(24장전면-24장후면)	酬微之誇鏡湖(虞), 권23(p.1534).	長慶 3(823), 杭州, 杭州刺史.	52세
제104수(24장후면)	紫薇花(東), 권24(p.1623).	寶曆 元年(825), 蘇州, 蘇州刺史.	54세
제105수(24장후면-25장전면)	偶飲(東), 권24(p.1640).	寶曆 元年(825), 蘇州, 蘇州刺史.	54세
제106수(25장전면)	正月三日閑行(蕭), 권24(p.1653).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07수(25장전면-25장후면)	病中多雨逢寒食(先), 권24(p.1661).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08수(25장후면-26장전면)	眼病(麻), 권24(p.1671).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09수(26장전면)	詠懷(寒), 권24(p.1675).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10수(26장전면-26장후면)	鸚鵡(東), 권24(p.1692).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11수(26장후면)	題天竺寺(文), 『白居易集箋校』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제112수(26장후면-27장전면)	琴茶(刪), 권25(p.1703).	寶曆 2(826), 蘇州, 蘇州刺史.	55세
제113수(27장전면-27장후면)	寄殷恆律(文), 권25(p.1746).	太和 2(828), 洛陽, 秘書監.	57세
제114수(27장후면)	鏡換盃(支), 권26(p.1803).	太和 2(828), 長安, 刑部侍郎.	57세
제115수(27장후면-28장전면)	不出門(眞), 권26(p.1895).	太和 3(829), 洛陽, 太子賓客分司.	58세
제116수(28장전면)	過元家履信宅(支), 권27(p.1917).	太和 6(832), 洛陽, 河南尹.	61세
제117수(28장전면-28장후면)	題崔常侍濟上別墅(文), 권25(p.1919).	太和 6(832), 濟源, 河南尹.	61세
제118수(28장후면-29장전면)	子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着(著)在 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 賀一以自嘲(支), 권28(p.1935).	太和 3(829), 洛陽, 太子賓客分司.	58세
제119수(29장전면)	橋亭卯飲(青), 권28(p.1951).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59세
제120수(29장전면-29장후면)	夜宴惜別(尤), 권28(p.1966).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59세
제121수(29장후면)	座中戲呈諸少年(陽), 권28(p.1985).	太和 5(831), 洛陽, 河南尹.	60세
제122수(29장후면-30장전면)	戲贈夢得兼呈思黯(先), 권34(p.2337).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3수(30장전면)	早春憶遊思黯南莊因寄長句(尤) 권34(p.2338).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4수(30장후면)	送蕪春李十九使君赴郡(支), 권34(p.2340).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5수(30장후면-31장전면)	寒食日寄楊東川(眞), 권34(p.2342).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고』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126수(31장전면)	早夏晚興贈夢得(陽), 권34(p.2347).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7수(31장전면-31장후면)	誚思艷相公晚夏雨後感秋見贈 (支), 권34(p.2354).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8수(31장후면)	久雨閑閣對酒偶吟(歌), 권34(p.2355).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29수(31장후면-32장전면)	九月八日誚皇甫十見贈(陽), 권34(p.2364).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30수(32장전면)	開成大行皇帝挽歌詞(庚) 권35(p.2418).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31수(32장전면-32장후면)	感秋詠意(微), 권35(p.2424).	會昌 元年(841), 洛陽, 太子賓客 分司.	70세
제132수(32장후면)	老病幽獨偶吟所懷(東), 권35(p.2425).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33수(33장전면)	偶吟自慰兼呈夢得(眞), 권35(p.2448).	會昌 元年(841), 洛陽.	70세
제134수(33장전면-33장후면)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雪夜同宿小 酌(眞), 권36(p.2510).	會昌 元年(841), 洛陽.	70세

위의 <표 1>의 구성과 저작사향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칠언율시는 62수인데 제73수-제134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② 시의 운자는 모두 평성(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陽’(제73수), ‘麻’(제74수), ‘東’(제75수), ‘東’(제76수), ‘灰’(제77수), ‘文’(제78수), ‘先’(제79수), ‘眞’(제80수), ‘眞’(제81수), ‘眞’(제82수), ‘支’(제83수), ‘尤’(제84수), ‘刪’(제85수), ‘先’(제86수), ‘東’(제87수), ‘先’(제88수), ‘眞’(제89수), ‘齊’(제90수), ‘灰’(제91수), ‘先’(제92수), ‘刪’(제93수), ‘陽’(제94수), ‘冬’(제95수), ‘東’(제96수), ‘先’(제97수), ‘侵’(제98수), ‘支’(제99수), ‘陽’(제100수), ‘歌’(제101수), ‘陽’(제102수), ‘虞’(제103수), ‘東’(제104수), ‘東’(제105수), ‘蕭’(제106수), ‘先’(제107수), ‘麻’(제108수), ‘寒’(제109수), ‘東’(제110수), ‘文’(제111수), ‘刪’(제112수), ‘文’(제113수), ‘支’(제114수), ‘眞’(제115수), ‘支’(제116수), ‘文’(제117수), ‘支’(제118수), ‘靑’(제119수), ‘尤’(제120수), ‘陽’(제121수), ‘先’(제122수), ‘尤’(제123수), ‘支’(제124수), ‘眞’(제125수),

‘陽’(제126수), ‘支’(제127수), ‘歌’(제128수), ‘陽’(제129수), ‘庚’(제130수), ‘微’(제131수), ‘東’(제132수), ‘眞’(제133수), ‘眞’(제134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眞’ 8회, ‘東’ 8회, ‘支’ 7회, ‘先’ 7회, ‘陽’ 6회이다. 칠언율시의 경우에는 1·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에서 압운하지 않는 경우는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75수, 제77수, 제78수, 제82수, 제84수, 제86수, 제87수, 제88수, 제93수, 제95수, 제96수, 제97수, 제98수, 제106수, 제107수, 제108수, 제109수, 제112수, 제113수, 제114수, 제116수, 제118수, 제119수, 제121수, 제122수, 제123수, 제125수, 제134수 등이다.⁵⁾

③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율시는 61수는 모두 「백거이문집」에서 선집 되었는데, 주금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3수, 권14/3수, 권15/5수, 권16/6수, 권17/3수, 권19/3수, 권20/4수, 권23/1수, 권24/7수, 권25/3수, 권26/3수, 권28/4수, 권34/9수, 권35/4수, 권36/1수, 권37/1수이다. 1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④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 시기는 20대 1수, 30대에 5수, 40대에 14수, 50대에 22수, 60대 15수, 70대 4수, 기타 2수이다. 50대의 저작이 22수로 가장 많이 선집 되었고, 다음은 60대 15수, 40대 14수, 30대와 70대가 4수, 20대가 1수, 기타 1수는 시기를 알 수 없었다.

20대에는 1수가 선집 되었는데, 28세인 정원 15년(799)에 읊은 제76수이다. 30대에는 5수가 선집 되었는데, 33세인 정원 20년(804)에 제76수, 38세인 원화 4년(809)에 제77수와 제83수, 39세인 원화 5년(810)에 제78수, 37세 - 40세인 원화 3년(808)부터 원화 6년(811) 사이에 제79수를 지었다. 40대에는 14수가 선집 되었는데, 44세인 원화 10년(815)에 제81수, 제85수, 제86수, 제87수, 제88수의 5수, 45세인 원화 11년(816)에 제89수-제95수의 5수, 46세인 원화 12년(817)에 제94

5) 姜順愛,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21-22.

수의 1수, 47세인 원화 13년(818)에 제95수, 제96수, 제97수의 3수이다. 50대에는 22수가 선집 되었는데, 50세인 장경 원년(821)에 제98수의 1수, 51세인 장경 2년(822)에 제99수와 제100수의 2수, 52세인 장경 3년(823)에 제73수, 제74수, 제101수, 제103수의 4수, 53세인 장경 4년(824)에 제102수의 1수, 54세인 보력 원년(825)에 제104수와 제105수의 2수, 55세인 보력 2년(826)에 제106수 - 제110수와 제112수의 6수, 57세인 태화 2년(828)에 제113수와 제114수인 2수, 58세인 태화 3년(829)에 제115수와 제118수의 2수, 59세인 태화 4년(830)에 제119수와 제120수의 2수이다. 60대에는 15수가 선집 되었는데, 60세인 태화 5년(830)에 제84수와 제121수의 2수, 61세인 태화 6년(831)에 제116수와 제117수의 2수, 67세인 개성 3년(839)에 제82수, 제122수-제129수의 9수, 69세인 개성 5년(840)에 제130수와 제132수의 2수를 저술하였다. 70대에는 4수가 선집 되었는데, 70세인 회창 원년(841)에 제131수, 제133수, 제134수의 3수, 72세-73세인 회창 3년(843)에서 회창 4년(844)에 제80수의 1수를 읊었다. 기타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은 제111수의 1수이다.

둘째, 저작 장소는 낙양 24수, 강주 10수, 장안 8수, 소주 8수, 항주 5수, 장안-강주 도중 4수, 제원 1수, 장소미상 2수였다. 칠언율시의 저작 장소는 주로 낙양이 중심이었고 다음은 강주, 장안, 소주, 항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저작 장소는 낙양 1수였고, 30대의 저작 장소는 장안 5수였다. 40대는 강주 10수와 장안-강주 도중 4수의 14수이었다. 50대는 소주 8수, 항주 5수, 낙양 5수, 장안 4수의 22수였다. 60대는 낙양 14수, 제원 1수의 15수이었고, 70대는 낙양 4수였으며, 장소미상이 1수였다. 20대와 30대의 저작 장소는 낙양과 장안이었고, 40대는 장안에서 강주로 옮겨졌다. 50대는 소주, 항주, 낙양, 장안을 중심으로 시작(詩作)이 이루어졌고, 60대와 70대는 낙양이 저작 공간의 중심이었다.

셋째, 백거이의 저작과 관련된 벼슬을 보면, 2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벼슬을 거쳤는데, 이러한 벼슬살이는 그의 저작 시기 및 저작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시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대인 28세에는 과거에 합격하기 전이어서 낙양에 있으면서 시를 한 수 지었

는데, 당시 이희열(李希烈)의 반란으로 흩어진 형제가 고향인 하궤(下邳)에서 함께 모였으면 하는 필자의 심정을 잘 묘사되어 있다. 30대에는 장안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36세인 원화 2년(807)에 원진과 함께 제거(制舉: 중국 당나라 때 황제의 명령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에 합격하여 주질위(整屋尉)에 제수되었고, 이후 좌습유(左拾遺), 경조호조참군(京兆戶曹參軍),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에 제수되었다. 이 시기는 직무수행에서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시가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면서 풍유시(諷諭詩)를 많이 지은 시기로 간주된다. 40대에는 강주에서 강주사마(江州司馬) 벼슬을 하였는데 이 시기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기로 풍유시와 한적시(閑適詩)를 많이 지었다. 50대는 장안에서 주객랑(主客郎), 중서사인(中書舍人), 형부시랑(刑部侍郎)을 지냈고, 항주의 항주자사(杭州刺史), 소주의 소주자사(蘇州刺史)를 거쳤으며, 낙양에서 비서감(秘書監),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의 벼슬을 지냈다. 각 지역별로 벼슬살이와 관련되어 장안, 항주, 소주, 낙양을 중심으로 비풍유시(非諷諭詩)를 많이 지었다. 60대는 낙양에서 하남윤(河南尹), 태자소부분사(太子少傅分司)를 지냈고, 70대도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를 지내고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치사(致仕)하였다. 60대와 70대는 낙양에서 여러 벼슬살이를 거치면서 비풍유시들을 많이 지었다.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내용

「향산삼체법」 칠언율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인물교류’ 28수, ‘감회’ 19수, ‘풍광’ 15수로 3개 분야의 62수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인물교류

백거이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이 있는데, 제75수, 제77수, 제78수,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제79수, 제80수, 제82수, 제83수, 제84수, 제85수, 제92수, 제93수, 제95수, 제99수, 제102수, 제103수, 제113수, 제116수, 제117수, 제118수, 제122수, 제123수, 제124수, 제125수, 제126수, 제127수, 제129수, 제133수, 제134수의 28수이다.

위의 시에서 백거이와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이며 27명이다. 백거이의 시에 관련된 사례별로 살펴보면, 원진이 제83수, 제103수, 제116수, 제118수의 4수, 유우석이 제82수, 제122수, 제126수, 제133수의 4수, 우승유가 제122수, 제123수, 제127수의 3수이며, 이잉숙이 제82수, 제134수의 2수이다. 기타 23명은 모두 각 1수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진(元稹)

원진(元稹)⁶⁾과 관련된 시는 제83수, 제103수, 제116수, 제118수의 4수이다. 제83수인 ‘江樓月’은 백거이가 38세이던 원화 4년(809)에 장안에서 좌습유, 한림학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그 해에 원진이 사천에 있고, 백거이가 장안에 있으면서 가릉강(嘉陵江) 강변의 누각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이다. 당시 감찰어사이던 원진이 사천성 지방으로 가던 도중에 시 32수를 지었다. 백거이가 그중의 12수에 화답하여 지은 『酬和元九東川路詩十二首』 중의 제5수이다.⁷⁾ 제103수인 ‘酬微之誇鏡湖’는 백거이가 52세이던 장경 3년(823)에

6) 원진(元稹, 779~831): 자는 미지(微之)이다. 9세에 시문에 능했고, 15세에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였으며 25세 때 이부(吏部)에서 실시하는 서판발취과(書判拔萃科)에 4등으로 합격하여 비서성교서랑(秘書省校書郎)에 제수되었다. 28세 때 특수 인재선발시험인 제거(制舉)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해 좌습유(左拾遺)가 되었으며, 뒤에 감찰어사(監察御史)에도 제수되었다. 이후 환관에게 미움을 받아 10년간 권척되었다. 나중에는 환관과 밀착하여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무창군절도사(武昌軍節度使)가 되었다가 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백거이(白居易)와 함께 신악부운동(新樂府運動)을 주도하였고, 고문(古文)의 회복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유행하던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영향을 받은 연애시를 지어 원화체(元和體: 당 현종의 원화(元和) 연간(806-820)에 유행하던 시체(詩體))의 대표자가 되었다. 원진은 백거이와 더불어 사회적 저항과 관련된 옛 민가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했다. 그의 반자전적인 소설 <앵앵전(鶯鶯傳)>을 비롯하여 장편서사시 <연창궁사(連昌宮詞)>가 유명하고, 문집은 현재 『원씨장경집(元氏長慶集)』이 전해진다(신민아, “元稹의 애정시 연구,” 『中國文化研究』 第20輯(2012), 47-49. 참조).

7) 김경동,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42-43.

항주에서 항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원진이 경호(鏡湖)를 자랑한데 대해 친구의 벼슬이 점점 높아져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이다. 제116수인 ‘過元家履信宅’은 백거이가 61세이던 태화 6년(832)에 낙양에서 하남윤 때 지은 시이다. 원진이 죽은 이후 장안 이신방(履信坊)에 있던 그의 옛집을 방문하여 지은 시인데, 시의 내용에는 원진이 죽은 후 그의 옛집은 점점 황폐화 되어 가는데 앞뜰과 후원에서 가슴 아픈 일은 오직 봄바람과 가을 달이나 알아주겠지 하는 시인의 애절한 그리움이 표현되었다. 제118수인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着(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는 백거이가 58세이던 태화 3년(829)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 때 지은 시이다. 백거이와 원진은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탄식하는 말이 나와 시에 담았는데, 금년 겨울에 각기 아들 하나를 두게 되었다. 장난삼아 두 편의 시를 지어 한편으로는 서로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자조하는 뜻을 드러낸 시이다.

② 유우석(劉禹錫)

유우석(劉禹錫)⁸⁾과 관련된 시도 제82수, 제122수, 제126수, 제133수의 제4수이다. 제82수인 ‘落下雪中頻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尚書’는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낙하(洛下) 눈 속에서 자주 유우석과 이잉숙 두 사람과 함께 잔치에 모였던 일을 변주(汴州) 이상서인 이신(李紳)에게 부친 글이다. 제122수인 ‘戲贈夢得兼呈思黯’은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을

8) 유우석(劉禹錫): 당 대력(大曆) 7년(772)에 태어나 회창(會昌) 2년(842)에 사망하였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해 온 사족(士族) 출신이었다. 그는 가문 배경보다는 재능과 학식을 통해 정원(貞元) 9년(793) 22세 나이로 진사와 박학평사과(博學宏詞科)에 급제하여 태자교서(太子校書), 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을 역임하고, 영정(永貞) 원년(805)에 왕숙문(王叔文)이 추진하는 정치혁신에 참여하였다. 혁신에 실패하자 그는 반대파에게 소인배로 몰려 낭주사마(朗州司馬)로 폄적되었고, 그 후 20여 년간 연주(連州), 기주(夔州), 화주(和州) 등지의 자사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가 산 시대는 중당대(中唐代)로서 정치·사회적으로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던 혼란기였다. 유우석은 이러한 전환기에 살면서 당시의 여러 중대한 문제와 사회모순 등을 반영하였다(俞聖潛, “劉禹錫의 屈原 계승,” 『中國學研究』 第20輯(2001. 6), 186-188. 참조).

돌아보며 장난삼아 몽득(夢得) 유우석과 사암(思黯) 우승유(牛僧孺)에게 보낸 시편이다. 제126수인 ‘早夏曉興贈夢得’도 역시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그는 하루하루 덧없는 삶을 돌아보며 유우석에게 난신당(暖新堂)에 함께 놀겠다는 다짐의 시를 보낸 것이다. 제133수인 ‘偶吟自慰兼呈夢得’은 백거이가 70세이던 회창 원년(841)에 낙양에서 지은 시이다. 그는 칠십세가 되면서 동갑나기인 유우석에게 늙고 병든 것과 가난함을 혐의치 말고 옛날 교류하던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갔으며 존영(尊榮)과 부귀장수를 겸해 얻긴 어려우니 한가로이 앉아 몸에 가장 긴요한 것만을 생각하자는 자신의 뜻과 다짐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③ 우승유(牛僧孺)

우승유(牛僧孺)⁹⁾와 관련된 시는 제122수, 제123수, 제127수의 3수이다. 제122수인 ‘戲贈夢得兼呈思黯’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백거이가 유우석과 우승유에게 보낸 시로 낙양에서 서로 교분이 두텁던 시절에 보낸 것이다. 제123수인 ‘早春憶遊思黯南莊因寄長句’는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이른 봄에 우승유가 낙양성 남쪽에 있던 사암의 남장(南莊)

9) 우승유(牛僧孺): 우승유는 안정(安定) 출신이며 덕종(德宗) 건중(建中) 1년(780)에 태어났다. 자는 사암(思黯)이다. 정원(貞元) 21년(805)에李宗閔, 황보식(黃甫湜)과 함께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원화(元和) 3년(808)에 이궤(伊闕)의 위(尉)에 직책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하남위(河南尉),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냈다. 원화 13년(818)에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郎) 겸시어사지잡사(兼侍御使知雜事)에 임명되었고, 장경(長慶) 1년(821)에는 고부랑중지제고(庫部郎中知制誥)와 어사중승(御使中丞)을 지냈다. 장경 2년(822)에 호부시랑(戶部侍郎), 장경 3년(823)에는 본관동평장사(本官同平章事)를 거쳐 재상에 올랐다. 대화(大和) 3년(829)에 장안으로 돌아와 병부상서(兵部尚書)와 동평장사(本官同平章事)에 임명되었다. 대화 6년(832)에는 양주(揚州)와 회남(淮南)에서 지방관을 지냈다. 개성(開成) 2년(837)에 검교사공(檢校司空)으로 승진하였고, 낙양의 유수를 지내면서는 백거이, 유우석과 자주 시를 짓고 어울렸다. 개성 3년(838)에 좌복야에 임명되면서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다. 대중(大中) 1년(847)에 형주(衡州)와 여주(汝州)를 거쳐 태자소사(太子少師)에 재임용되었다. 이듬해인 대중 2년(848)에 운명하였다. 태위(太尉)에 추서되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그의 저술은 「우승유집(牛僧孺集)」, 5권과 「우승유문(牛僧孺文)」, 2권이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것이 없고 약간의 시와 산문만이 전한다(박민웅, “牛僧孺傳考,” 「중국어문학논집」, 제9호(1997. 8), 486-502. 참조).

에서 놀던 때를 생각하고 글을 지어 부친 것이다. 제127수는 ‘誦思黯相公晚夏雨後感秋見贈’ 역시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우승유가 늦은 여름 비개인 뒷날 보내준 감추시(感秋詩)에 화답한 것이다.

④ 이잉숙(李仍叔)

이잉숙(李仍叔)¹⁰⁾과 관련된 시는 제82수, 제134수의 2수이다. 제82수 ‘落下雪中頻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尚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하(洛下) 눈속에서 자주 유우석과 이잉숙 두 사람과 함께 잔치에 모였던 일을 변주 이상서인 이신에게 부친 글이다. 제134수인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雪夜同宿小酌’은 백거이가 70세이던 회창 원년(841)에 낙양에서 지은 시인데, 이중승과 이급사와 산중 거처에서 눈 내리는 밤에 같이 자며 간편한 술자리에서 읊은 시에 화답한 것이다. 이중승은 이잉숙인데 이급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⑤ 기타 인물

백거이와 교류하여 시에 등장하는 23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그룹은 30대 4명, 40대 5명, 50대 4명, 60대 8명, 70대 2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30대에 시로 교류하던 인물은 ‘가서대(哥舒大)’(제75수), ‘왕십팔(王十八)’(제77수), ‘유순지(庾順之)’(제78수), ‘주호대부(周皓大夫)’(제79수)의 4명이다.

가서대(哥舒大)¹¹⁾와 관련이 있는 제75수인 ‘酬哥舒大見贈’은 백거이가 33세

10)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四 (上海古籍出版社, 2008), 2049-2050. ‘洛陽春贈劉李二賓客’의 詩의 箋註 部分: “이잉숙(李仍叔): 태화(太和) 8년(834) 12월 기해에 중정경(宗正卿) 이잉숙(李仍叔)으로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를 삼고 이호(李翱)를 대신하게 하였다. 태화(太和) 9년(835) 8월 임인에 소주자사(蘇州刺史) 노주인(盧周仁)으로 호남관찰사를 삼았다. 이 시기에 이잉숙은 호남관찰사를 그만 두고 태자빈객(太子賓客)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11)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24. ‘酬哥舒大見贈’ 詩의 箋註 部分: “가서대(哥舒大): 가서궁(哥舒恆) 또는 가서원(哥舒垣). 정원(貞元) 19년(803)에 백거이와 함께 이부(吏部)에서 주관하는 서관발취과(書判拔萃科)에 합격하였다.”

이던 정원 20년(804)에 장안에서 지은 것이다. 가서대에게 선물 받은 것을 회답한 시이다. 이 시에는 ‘去年先生與哥舒等八人共登科第今敍會散之愁意’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부제의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지난해 백거이가 가서 등 8인¹²⁾과 함께 과거에 합격하여 즐겁게 어울려 지냈다. 한데 이들은 각기 미관말직을 따라 살아가느라 이별 속에 모두 세월만 보내고 있던 차에 다행이 가서를 만나 돌만이라도 같이 있게 되니 근심스럽고 기쁘다는 것이다.

왕십팔(王十八)¹³⁾과 연계된 제77수인 ‘送王十八歸山寄題仙遊寺’는 백거이가 38세이던 원화 4년(809) 장안에서 좌습유, 한림학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왕십팔이 산으로 돌아갈 제 전송하며 선유사(仙遊寺) 시를 써서 부친 것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선유사는 백거이와 왕질부(王質夫)의 문학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공간으로 여겨진다. 백거이는 원화 원년(806년) 4월에 주질현(周至縣)의 현위(縣尉)가 된다. 그곳에서 백거이는 진홍(陳鴻) 및 왕질부와 만나게 된다. 그해 11월 어느 날 일행은 근처 선유사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왕질부는 백거이와 진홍에게 양귀비(楊貴妃)의 죽음에 관한 전설을 들려주었다. 백거이는 원화 2년(807)에 <장한가(長恨歌)>를 짓고, 진홍(陳鴻)은 『장한가전(長恨歌傳)』을 지었으니 이들이 교류한 선유사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문학의 산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순지(庾順之)¹⁴⁾와 연관이 있는 제78수인 ‘庾順之以紫霞綺贈以詩答之’는 백거이가 39세이던 원화 5년(810)에 장안에서 경조호조참군, 한림학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유순지가 멀리서 붉은 비단을 보내왔는데 시로 그 마음에 화답한 것이다. 백거이는 비단을 보내 준 친구의 마음이 정중하여 향기로운 한끝 비단에 붉은 기운이 감돌아 비단을 차마 자르지도 못한다. 그 비단으로 함환이불을 만든

12)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24. ‘酬哥舒大見贈詩의 箋註 部分: “8인은 여경(呂旻), 왕기(王起), 백거이(白居易), 이부례(李復禮), 여영(呂穎), 가서공(哥舒恆), 원진(元稹), 최현량(崔玄亮)이다.”

13)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800. ‘送王十八歸山寄題仙遊寺’詩의 箋註 部分: “왕십팔(王十八)은 왕질부(王質夫)이다.”

14)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808. ‘庾順之以紫霞綺贈以詩答之’詩의 箋註 部分: “유순지(庾順之)는 유경휴(庾敬休)임. 유경휴의 자(字)가 순지(順之)이다.”

다 하여도 자나 깨나 그대를 생각하여 마주보듯 함만 못하리라는 친구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대부(周皓大夫)와 관련이 있는 제79수인 ‘宴周皓大夫光福宅’은 백거이가 37-40세이던 원화 3년(808)~원화 6년(811)에 장안에서 한림학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주호대부 광복택에서 잔치한 풍광을 묘사한 시인데, 주호대부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둘째, 40대에 시로 교류하던 인물은 왕처사(王處士)(제85수), ‘이상공(李相公)·최시랑(崔侍郎)·전사인(錢舍人)’(제92수), ‘왕십오(王十五)’(제93수), ‘곽도사(郭道士)’(제95수)의 4명이다.

왕처사(王處士)와 관련된 제85수 ‘題王處士郊居’는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강주로 가는 도중에 교외에 거주하는 왕처사에게 보낸 시이다. 왕처사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상공(李相公)·최시랑(崔侍郎)·전사인(錢舍人)¹⁵⁾과 관련된 제92수는 ‘寄李相公崔侍郎錢舍人’은 백거이가 45세이던 원화 11년(816)에 강주(江州)에서 강주사마로 있으면서 이강(李絳), 최군(崔群), 전휘(錢徽)의 세 사람에게 보낸 시이다. 백거이는 이들 세 사람과 한림학사의 내직(內職)에 함께 있었던 친분이 있었다.

왕십오(王十五)와 관련된 제93수인 ‘南浦歲暮對酒送王十五歸京’은 백거이가 45세이던 원화 11년(816)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세모에 남포에서 술을 대하고 서울로 가는 왕십오를 전송하는 시이다. 왕십오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곽도사(郭道士)¹⁶⁾와 관련된 제95수인 ‘尋郭道士不遇’는 백거이가 47세이던 원

15)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1011-1012. ‘寄李相公崔侍郎錢舍人’ 詩의 箋註 部分: “이상공(李相公)은 이강(李絳)이고 자는 심지(深之)이다. 조군(趙郡) 찬황인(贊皇人)이다. 원화(元和) 6년(811)에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 최시랑(崔侍郎)은 최군(崔群)임. 원화(元和) 12년(817)에 호부시랑(戶部侍郎)에서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 전사인(錢舍人)은 전휘(錢徽)임. 원화(元和) 10년(815)에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옮겼다.”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화 13년(818)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광도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내용의 시인데, 광도사인 광허주(郭虛舟)는 당시 형판사(荊判司)로 있었고 백거이가 강주사마로 있었을 때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맺은 사이였다.

셋째, 50대에 시로 교류하던 인물은 ‘소상공(蕭相公)·자원선사(自遠禪師)’(제99수), ‘장원외(張員外)’(제102수), ‘은협률(殷協律)’(제113수)의 4명이다.

소상공(蕭相公)¹⁷⁾·자원선사(自遠禪師)와 관련된 제99수인 ‘蘇相公宅遇自遠禪師有感而贈’은 백거이가 51세이던 장경 2년(822)에 장안에서 중서사인 때 지은 시이다. 소상공택에서 자원선사를 만나 느낌이 있어 드린 시이다. 소상공은 소면(蕭旉)인데, 자원선사는 어느 승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장원외(張員外)¹⁸⁾와 관련된 제102수인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는 백거이가 53세이던 장경 4년(824)에 항주에서 항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강루에서 저녁 조망의 아름답고 기이한 경치를 감상하고 시 한편을 써서 수부 장원외에게 부친 것이다. 장원외는 장적(張籍)이다. 백거이는 원진과 함께 신악부 운동(新樂府運動)을 전개하였는데, 장적, 왕건(王建), 이신 등이 같은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다.

은협률(殷協律)¹⁹⁾과 관련된 제113수는 ‘寄殷俠律’은 백거이가 57세이던 태화 2년(828)에 낙양에서 비서감으로 있으면서 은협률 즉 은요번(殷堯藩)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넷째, 60대에 시로 교류하던 인물은 모두 백거이가 낙양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교류하던 ‘이상서(李尙書)’(제82수), ‘풍소윤(馮少尹)·이낭중(李郎中)·진주부

16)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二(上海古籍出版社, 2008), 1071. ‘尋郭道士不遇詩’의 箋註 部分: “광도사(郭道士)는 광허주(郭虛舟)이다.”

17)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三(上海古籍出版社, 2008), 1285. ‘蘇相公宅遇自遠禪師有感而贈’ 詩의 箋註 部分: “소상공(蕭相公)은 소면(蕭旉)임. 목종(穆宗)이 즉위하여 소면을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다.”

18)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三(上海古籍出版社, 2008), 1375.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 詩의 箋註 部分: “장원외(張員外)는 수부원의랑(水部員郎) 장적(張籍)이다.”

19)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三(上海古籍出版社, 2008), 1746. ‘寄殷俠律’ 詩의 箋註 部分: “은협률(殷協律)은 은요번(殷堯藩)이다.”

(陳主簿)’(제84수), 최상시(崔常侍)(제117수), ‘이십구사군(李十九使君)’(제124수), 양동천(楊東川)(제125수), ‘황보십(皇甫十)’(제129수)의 8명이다.

이상서(李尙書)²⁰⁾와 관련된 제82수인 ‘落下雪中頻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尙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하(洛下) 눈속에서 자주 유우석과 이잉숙 두 사람과 함께 잔치에 모였던 일을 변주 이상서인 이신에게 부친 글이다.

‘풍소윤(馮少尹)·이낭중(李郎中)·진주부(陳主簿)’²¹⁾와 관련된 제84수인 ‘認春戲呈馮少尹李郎中陳主簿’는 백거이가 60세이던 태화 5년(831)에 낙양에서 하남운 때 지은 시이다. 봄이 오자 장난삼아 풍소윤·이낭중·진주부에게 드린 글이다. 풍소윤은 하남소윤(河南少尹) 풍정(馮定)인데, 이낭중과 진주부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최상시(崔常侍)²²⁾와 관련 있는 제117수인 ‘題崔常侍濟上別墅’는 백거이가 61세이던 태화 6년(832)에 제원에서 하남운 때 지은 시이다. 주금성 전주인 『백거이 집전교』에 실려 있는 시의 소주(小注)를 참고하면,²³⁾ 당시 최현량(崔玄亮)이 장안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오랫동안 황제에게 아뢰었으니, 백거이가 먼저 제원에 있는 별장에 들러 샘과 들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다는 시이다.

이십구사군(李十九使君)²⁴⁾과 관련 있는 제124수인 ‘送蕪春李十九使君赴郡’은

20)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四 (上海古籍出版社, 2008), 2331-2332. ‘落下雪中頻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尙書’의 詩의 箋註 部分: “변주이상서(汴州李尙書)는 이신(李紳)이다. 개성(開成) 원년(836) 6월 무술삭(戊戌朔), 계해(癸亥)에 하남운(河南尹) 이신(李紳)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尙書), 변주자사(汴州刺史)로 선무군절도사(宣武軍節度使)에 중당하였다.”

21)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746. ‘認春戲呈馮少尹李郎中陳主簿’ 詩의 箋註 部分: “풍소윤(馮少尹)은 하남소윤(河南少尹) 풍정(馮定)이다.”

22)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919-1920. ‘題崔常侍濟上別墅’ 詩의 箋註 部分: “최상시(崔常侍)는 최현량(崔玄亮)이다.”

23)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919-1920. ‘題崔常侍濟上別墅’ 詩의 부제: “時常侍以長告罷歸 今故先報泉石.”

24)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四 (上海古籍出版社, 2008), 2341-2342. ‘送蕪春李十九使君赴郡’ 詩의 箋註 部分: “이십구사군(李十九使君)은 기주자사(蕪州刺史) 이파(李播)이다.”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기춘(蘄春)²⁵에 거주자사(蘄州刺使) 이파(李播)가 고을로 부임함을 진송한 글이다.

양동천(楊東川)²⁶과 관련 있는 제125수 ‘寒食日寄楊東川’은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한식날에 동천 절도사 양여사(楊汝士)에게 부친 글이다.

황보십(皇甫十)²⁷과 관련 있는 제129수 ‘九月八日酬皇甫十見贈’은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9월 8일 황보서(皇甫曙)가 보내준 글에 화답한 것이다.

다섯째, 70대에 시로 교류하던 인물은 ‘양계지(楊繼之)’(제80수), ‘이급사(李給事)’(제134수)의 2명이다.

양계지(楊繼之)²⁸와 관련된 제80수인 ‘得潮州楊相公繼之書并詩以此寄之’는 백거이가 72세-73세 사이인 회창 3년(843)~회창 4년(844)에 낙양에서 형부상서를 치사(致仕)하고 지은 시이다. 조주 상공 양계지의 편지와 시를 받고 이 시에 부친 글이다.

이급사(李給事)와 관련된 제134수인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雪夜同宿小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거이가 이중승과 이급사와 함께 산중 거처에서 눈 내리는 밤에 같이 자며 간편한 술자리에서 읊은 시에 화답한 것이다. 이중승은 이영숙이지만, 이급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3.2 감회

백거이가 감회를 읊은 시는 19수이다. 낙양 9수, 소주 6수, 강주 2수, 항주 1수,

25) 기춘(蘄春): 기주(蘄州)이며 옛날에는 기춘군(蘄春郡)이었다.

26)白居易著,朱金城箋注,『白居易集箋校』四(上海古籍出版社,2008),2342-2343.‘寒食日寄楊東川’詩의箋註部分:“양동천(楊東川)은 양여사(楊汝士)이다.”

27)白居易著,朱金城箋注,『白居易集箋校』四(上海古籍出版社,2008),2364.‘九月八日酬皇甫十見贈’詩의箋註部分:“황보십(皇甫十)은 황보서(皇甫曙)이다.”

28)白居易著,朱金城箋注,『白居易集箋校』四(上海古籍出版社,2008),2557.‘得潮州楊相公繼之書并詩以此寄之’詩의箋註部分:“양계지(楊繼之) 양사복(楊嗣復)이다.”

장안 1수이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낙양(洛陽)

낙양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76수, 제115수, 제119수, 제120수, 제121수, 제128수, 제130수, 제131수, 제132수의 9수이다.

제76수인 ‘自河南經亂關內阻飢兄弟離散各在一處因望月有感聊書所懷寄上浮梁大兄於潛七兄烏江十五兄兼示符離及下邳弟妹’는 백거이가 28세이던 정원 15년(799)에 낙양에서 이 시를 지었는데 가족들을 걱정하는 그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남에서 난리를 겪은 후로 관내가 굶주려 형제들이 모두 흩어지고 각기 다른 곳에 있으면서 보름달을 바라보고 느낌이 있으므로 품었던 마음을 큰형과 오삼의 칠 형과 오강의 십오 형에게 써 보내고 또 부리(符離) 및 하궤(下邳)의 자매들에게 보인 시이다. 제115수인 ‘不出門’은 백거이가 58세이던 태화 3년(829)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 때 지은 시이다. 문 밖에 안 나간 지 수십일 동안 마음을 맑게 하고 물욕을 버리면 진정한 도를 닦는 것임을 시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제119수인 ‘橋亭卯飲’은 백거이가 59세이던 태화 4년(830)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 때 지은 시이다. 교정에서 이른 새벽에 술 마시는 취향을 묘사한 것이다. 제120수인 ‘夜宴惜別’도 백거이가 59세이던 태화 4년(830)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 때 지은 시이다. 밤 잔치에 악기를 연주하고 이별곡을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석별을 노래한 것이다. 제121수인 ‘座中戲呈諸少年’은 백거이가 60세이던 태화 5년(831)에 낙양에서 하남운 때 지은 시이다.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며 술자리의 좌중에서 여러 소년에게 희롱삼아 권하는 내용의 글이다. 제128수인 ‘久雨閑悶對酒偶吟’은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오랜 비에 한가히 번민하다가 술을 대하여 읊은 시이다. 제130수인 ‘開成大行皇帝挽歌詞’는 백거이가 69세이던 개성 5년(840)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개성대행황제인 당나라 문종이 개성 5년 1월에 돌아가시자 황제를 위해 만가를 짓고 슬퍼한 노래이다. 제131수인 ‘感秋詠意’는 백거이가 70세이던 회창 원년(841)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 때 지은 시이다.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70세에 가을을 느끼며 노쇠한 자신의 마음을 읊어낸 시이다. 제132수인 ‘老病幽獨偶吟所懷’는 백거이가 69세이던 개성 5년(840)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시이다. 늙고 병든 이가 그옥이 외로워서 생각한 바를 노래한 것이다.

② 소주(蘇州)

소주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05수, 제107수, 제108수, 제109수, 제110수, 제112수의 6수이다. 제105수인 ‘偶飲’은 백거이가 54세이던 보력 원년(825)에 소주에서 소주자사로 있으면서 술 마시는 정취를 묘사한 것이다. 제107수인 ‘病中多雨逢寒食’은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병중에 비속에서 한식을 만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08수인 ‘眼病’ 역시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눈병이 나서 잘 낮지 상황을 그려낸 시이다. 제109수인 ‘詠懷’는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소주와 항주의 자사를 하는 5년 동안에 아름다운 강산을 돌아다니며 풍월을 읊고 백발이 성성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제110수인 ‘鸚鵡’는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인가(人家)에서 기르는 농서(隴西)땅 앵무새를 보고 노래한 시이다. 제112수인 ‘琴茶’는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의 소주자사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백거이가 좋아하는 거문고 곡조인 ‘녹수가(淶水歌)’와 친숙한 ‘몽산차(蒙山茶)’에 대해 읊은 것이다.

③ 강주(江州)

강주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88수와 제90수의 2수이다. 제88수인 ‘醉後題李馬李妓’는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술에 취한 뒤 이(李)·마(馬) 두 기생에게 써 주신 시이다. 제90수인 ‘北樓送客歸上都’는 백거이가 45세이던 원화 11년(816)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북루에서 서올로 올라가는 손을 전송하며 강주에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묘사한 것이다.

④ 항주(杭州)

항주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01수의 1수이다. 제101수인 ‘悲歌’는 백거이가 52세이던 장경 3년(823)에 항주에서 항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늙어가는 자신과 귀로에서 친구들의 죽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슬픈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⑤ 장안(長安)

장안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14수의 1수이다. 제114수인 ‘鏡換盃’는 백거이가 57세이던 태화 2년(828)에 장안에서 형부시랑 때 지은 시이다. 구슬로 꾸민 상자 속의 청동거울을 금주 백옥잔과 바꾸고 싶어 하는 시인의 속마음을 잘 노래한 것이다. 거울 속의 늙음은 피할 수 없고, 차는 번민을 잠시 흩어지게 하나 공이 적고 술 앞에서 시름이 가끔 사라짐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3.3 풍광

백거이가 풍광을 읊은 시는 15수이다. 항주 2수, 장안 2수, 장안-강주도상 3수, 강주 5수, 소주 2수, 장소미상 1수이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항주(杭州)

항주의 풍광을 읊은 것은 제73수와 제74수의 2수이다. 제73수인 ‘江樓夕望招客’은 장경 3년(823) 7월에 중서사인의 벼슬에 있다가 항주에 출수(出守)하는 길에 지은 것이다. 이곳은 당시 경제가 발전하고 항주의 성외(城外)는 인구가 조밀하였다. 항주성 강루(江樓)의 생활상을 묘사한 것이다.²⁹⁾ 제74수인 ‘杭州春望’은 백거이가 52세이던 장경 3년(823)에 항주에서 항주자사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항주자사의 치소(治所)에 있는 망해루(望海樓)에 날이 밝자 백거이는 자신이 만든 서호의 제방을 따라 모래를 밟으며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오원묘

29) 沈暉俊 著, 『香山三體法 研究』(서울: 一志社, 1997), 88.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伍員廟), 소소소(蘇小小)의 집, 항주 비단, 이화춘(梨花春; 술을 빚어 배꽃 밑에 나가 마셨던 풍속), 고산사(孤山寺)에 녹아든 흐드러진 봄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② 장안(長安)

장안의 풍광을 읊은 것은 제98수와 제100수의 2수이다. 제98수인 ‘西省對花憶中州東坡新花樹因寄題東樓’는 백거이가 50세이던 장경 원년(821)에 장안에서 주객량중, 지제고 때 지은 시이다. 궁궐 아래 있는 단청나무를 보면 금수림(錦繡林)이 생각나고 서약원, 남빈루에 있던 꽃나무들도 생각나는데 가장 생각나는 것은 동파(東坡)에 흐드러진 빨간 들복숭아, 산 살구, 물능금꽃이라고 노래한 것이다. 제100수인 ‘江亭翫春’은 백거이가 51세이던 장경 2년(822)에 장안에서 중서사인 때 지은 시이다. 장안의 강정(江亭)에 피어난 많은 화초들을 보면서 봄별이 화려하고 초목들이 모두 빛나는데 시름겨운 사람의 귀밑머리만 희끗희끗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여 노래한 것이다.

③ 장안(長安) - 강주(江州) 途上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강주로 가는 도상에서 읊은 것은 제81수, 제86수, 제87수의 3수이다. 제81수인 ‘白口阻風十日’은 종상현(鍾祥縣) 남쪽 90리 한수(漢水) 동쪽에 있는 구구시(白口市)에서 넓은 파도와 흰 물결로 인해 강나루가 막혀서 강주로 가지 못하고 열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기막힌 심사를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제86수인 ‘歲晚旅望’은 한 해가 저무는데 나그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췌한 겨울풍경을 바라보며 끝없는 시름에 잠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제87수인 ‘晏座閑吟’은 백거이가 강주사마로 좌천되어 장안에서 강주로 가는 도중에 험난한 정치일선에 물러나 선문의 무념무상인 비상정(非想定)의 한적한 정취를 그리며 세상의 분망한 삶을 잊어버리려는 작가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④ 강주(江州)

강주의 풍광을 노래 한 것은 제89수, 제91수, 제94수, 제96수, 제97수의 5수이다. 이들 시는 모두 백거이가 강주사마로 부임했던 원화 11년(816)부터 원화 13년(818)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제89수인 ‘庾樓曉望’은 백거이가 45세이던 원화 11년(816)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새벽녘 유루의 붉은 난간에 기대어 고향을 바라보는 자신의 쓸쓸한 심정을 300년 동안 그곳에 기대어 고향을 생각했던 사람들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제91수인 ‘百花亭晚望夜歸’ 역시 백거이가 45세이던 원화 11년(816)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백화정 위에서 늦게까지 배회하며 주변의 쓸쓸한 풍광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서 돌아가려하지만 근심이 그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그려낸 것이다. 제94수인 ‘石楠樹’는 백거이가 46세이던 원화 12년(817)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석남수를 그리워하면서 봄에 싹이 트면 일천등잔의 가는 심지와 같고 여름이면 무르익은 꽃술이 백화향을 태우는 것 같은 자태를 자세히 그려낸 시이다. 제96수인 ‘風雨晚泊’은 백거이가 47세이던 원화 13년(818)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이 시는 백거이가 종일토록 바람 불어 흰 물결이 하늘을 뒤 흔드는 날 대숲 가에 배를 대고 일생의 반이 지난 자신의 표탕(飄蕩)한 인생살이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제97수인 ‘八月十五日夜湓亭望月’은 백거이가 47세이던 원화 13년(818)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지은 시이다. 지난해 팔월 보름 중추절 밤에는 곡강(曲江)³⁰ 못가 행원을 거닐었는데, 금년 팔월 보름 중추절 밤에는 강주의 의 수관(水館)³¹ 앞에서 있으면서 강주의 아름다운 중추의 달빛을 노래한 시이다.

30) 곡강(曲江): 곡강지(曲江池)라고도 하는데 장안성 남쪽에 있었다. 진한시기부터 제왕들의 유락 장소였는데, 당의 현종이 연못 남쪽에 부용원(芙蓉苑), 행원(杏園), 자운루(紫雲樓), 낙유묘(樂游廟), 자은사(慈恩寺) 등의 명승지를 조성하였다. 장안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경치를 즐겼고, 명절에는 일반백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봄볕다고 한다.

31) 수관(水館) : 물을 끼고 있는 객사나 역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⑤ 소주(蘇州)

소주의 풍광을 노래 한 것은 제104수와 제106수의 2수이다. 제104수인 ‘紫薇花’는 백거이가 54세이던 보력 원년(825)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자미화가 자미옹(紫薇翁)³²⁾을 마주하고 있으니 이름은 같으나 모습은 같지 않음을 노래한 시이다. 제106수인 ‘正月三日閑行’은 백거이가 55세이던 보력 2년(826)에 소주에서 소주자사 때 지은 시이다. 3월 3일 황리항(黃鸝港) 어구의 한가로운 걸음으로 봄이 오려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⑥ 장소미상

장소미상인 것은 제111수의 1수이다. 제111수인 ‘題天竺寺’는 「백거이집전교」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 시는 또한 일본 서능부(西陵部) 소장본(4918)인 갑진자(성종 15, 1484)로 인출한 「백씨문집(白氏文集)」에도 들어있지 않고, 연세대학교 소장본(귀 841.17)인 목판본 「백씨문집」에도 들어 있지 않다.³³⁾ 시의 중심이 된 천축사(天竺寺)의 장소가 어디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장소미상으로 했는데, 아마도 제111수는 중국 항주에 있는 천축사의 풍광을 읊은 것으로 여겨진다.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 칠언율시와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은 각 시의 원문 해석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은 한국에서 간행된 것 중 현존하는 최초본이다. 주금성이 전주한 「백거이집전교」는 명 만력 34년(1606)

32) 백거이가 일찍이 중서사인(中書舍人)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자칭 자미옹(紫薇翁)이라 하였음. 당(唐)나라 중서성에 자미화(紫薇花)를 많이 심었으므로 중서성을 자미성이라고 불렀다.

33) 沈暎俊 著, 「香山三體法 研究」(서울: 一志社, 1997), 18.

마원조 간행의 『백거이장경집』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을 대비하여 교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 저서에 실려 있는 칠언율시 텍스트 간의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 상 종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을 A본,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를 B본으로 약칭하여 <표 2>로 비교하고자 한다.

<표 2> 종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의 비교

구분	종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1) 제73수 제목 제8구	江樓夕望招客 比君茅舍校清涼	江樓夕望招客 比君茅舍校清涼	B본의 箋校: 『咸淳臨按志』에는 '江樓夕望招客'의 제목이 '江樓夕望'임. 제8구의 '清涼'의 '清'이 那波本에는 '靑'임.
2) 제74수 제1구의 小注 제5구	望海樓明照曙霞(城東樓名望海) 紅袖織綾誇柿莖	望海樓明照曙霞(城東樓名望海) 紅袖織綾誇柿莖	제1구 小注에는 B본에 '樓'가 추가되어 있음. '蒂'와 '蒂'는 同字임.
3) 제75수 제목의 小注 제1구	酬哥舒大見贈(去年先生與哥舒等八人共登科第 今敍會散之愁意) 去歲歡遊何處去	酬哥舒大見贈(去年先生與哥舒等八人共登科第 今敍會散之意) 去歲歡遊何處去	A본 제목의 小注에는 '愁'가 추가되어 있음. B본의 箋校: 宋本에는 小注가 '今敍會散之愁意'로 되어 있음. 馬本, 汪本, 全詩의 注에 제1구 '何處去'의 '去'가 '好'로도 씀. 宋本의 注에는 '何處去'가 '何處好'로도 씀.
4) 제76수 제목 제1구 제5구	'自河南經亂關內阻饑...' 時亂年荒世業空 吊影分爲千里雁	'自河南經亂關內阻饑...' 時亂年荒世業空 吊影分爲千里雁	'飢'와 '饑'는 同字임. '年飢'가 '年荒'으로 되어 있음. B본의 箋校: '年荒'의 '荒'은 宋本, 那波本, 全詩, 盧校에는 모두 '饑'로 되어 있음. 全詩의 주에는 '荒'의 주석도 있음. '吊'는 '弔'의 俗字임. '鴈'과 '雁'은 同字임.
5) 제77수 제7구 제8구	惆悵舊遊無復到 菊花時節羨君廻	惆悵舊遊無復到 菊花時節羨君廻	B본의 箋校: '無復到'의 '無'는 『文苑英華』와 全詩에는 '那'로 쓴다. 汪本의 注에도 '那'이다. '羨'은 汪本, 全詩에는 '待'로 쓴다.
6) 제78수 제4구	滿幅風生秋水文	滿幅風生秋水紋	'文'과 '紋'은 같은 뜻의 글자임. B본의 箋校: '水紋'의 '紋'이 宋本, 那波本에는 '文'임.
7) 제79수 제4구 제8구	絲管入門聲沸天 唯借泉聲伴醉眠	絲管入門聲沸天 唯借泉聲伴醉眠	B본의 箋校: '沸天'의 '沸'은 『文苑英華』에는 '微'임 '泉聲'은 『文苑英華』와 全詩에는 '流泉'임.
8) 제80수 제1구 제8구	詩情書意兩殷勤 至今分照兩鄉人	詩情書意兩殷勤 至今分照兩鄉人(風池 屬楊相也 蝸舍 自謂也)	'殷勤'과 '殷勤'은 뜻이 같은 글자임 A본의 '兩鄉人'아래는 주석이 없고, B본의 '兩鄉人'아래는 주석이 있음. B본의 箋校: '兩鄉人'아래 馬本에는 주석이 없음.
9) 제81수 제1구	洪濤白浪塞江津	洪濤白浪塞江津	B본의 箋校: '白浪'의 '白'이 『文苑英華』에는 '波'임. 汪本, 全詩에는 '波'의 주석이 있음.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10) 제82수 제1구 제2구 제3구 제6구	水南北雪紛紛 雪裏歡游莫厭頻 日日暗來唯老病 紅燼香竹葉春	水南北總紛紛 雪裏歡游莫厭頻 日日暗來唯老病 紅燼香竹葉春	‘雪紛紛’이 ‘總紛紛’임. B본의 箋校: ‘總紛紛’의 ‘總’이 宋本, 那波本, 盧校에 모두 ‘雪’임. 注本에는 ‘雪’의 주석이 있음. ‘狀’과 ‘厭’은 同字임. B본의 箋校: ‘暗來’의 ‘暗’이 汪本, 盧校에 모두 ‘多’임. 全詩에는 한 주석이 ‘多’임. ‘綠’가 ‘燼’임. B본의 뜻이 더 합당한 듯함.
11) 제83수 제1구 제2구	江樓月 嘉陵江曲曲江遲 明月雖同人別離	江樓月 嘉陵江曲曲江池 明月雖同人別離	B본의 箋校: ‘江樓月’이 『文苑英華』에는 ‘江樓望月’임. ‘曲江遲’가 ‘曲江池’임. B본의 箋校: ‘曲江池’의 ‘池’는 宋本, 那波本 에는 모두 ‘遲’임. 全詩에는 한 주석이 ‘遲’임. 何校에는 宋刻에 ‘遲’임. B본의 箋校: ‘雖同’의 ‘雖’는 『文苑英華』에는 ‘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임.
12) 제84수 제4구	花朱開前枝已稠	花朱開前枝已稠	B본의 箋校: 馬本과 全詩에 ‘開前’의 ‘開’가 ‘로’ ‘時’로 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에 의거하여 개정함.
13) 제85수 제8구	著書盈帙鬢毛斑	著書盈帙鬢毛斑	‘班’과 ‘斑’은 通用字임.
14) 제86수 제8구	窮陰旅思兩無邊	窮陰旅思兩無邊	‘旅思’의 ‘旅’는 馬本에 ‘離’로 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全詩에도 ‘離’라 한 주석도 있음.
15) 제87수 제2구 제6구	今作江湖老倒翁 酒伴衰顏只暫紅	今作江湖潦倒翁 酒伴衰顏只暫紅	‘老倒’는 ‘潦倒’임. B본의 箋校: ‘潦倒’의 ‘潦’는 宋本, 那波本 모두 ‘老’임. 全詩에도 ‘老’라 한 주석도 있음. ‘暫’은 ‘暫’임. ‘暫’과 ‘暫’은 同字임.
16) 제88수 제2구 제3구	應似霓裳趨管絃 豔動舞裙渾是火	應似霓裳趨管絃 豔動舞裙渾是火	‘趨’는 ‘趨’임. 뜻이 비슷한 글자임. ‘豔’은 ‘豔’임. ‘豔’과 ‘豔’은 同字임.
17) 제89수 제4구 제6구	蘋風暖送過江春 衙鼓聲前未有塵	蘋風暖送過江春 衙鼓聲前未有塵	B본의 箋校: ‘暖送’은 馬本에 ‘送暖’으로 도치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 汪本, 『文苑英華』, 全詩에 의거하여 바로잡음. ‘鼓’는 ‘鼓’임. ‘鼓’는 ‘鼓’의 俗字임.
18) 제90수 제1구 제2구 제3구 제6구	惡高送遠一悽悽 却下朱闌卽解攜 京路人歸天直北 殘酒重傾簇馬蹄	惡高送遠一悽悽 却下朱闌卽解攜 京路人歸天直北 殘酒重傾簇馬蹄	B본의 箋校: ‘送遠’의 ‘送’은 馬本, 全詩에 모두 ‘眺’로 되어 있는데 모두 잘못된이다.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全詩에도 ‘送’이라 한 주석도 있음. B본의 箋校: ‘卽解攜’의 ‘卽解’는 馬本, 汪本에 모두 ‘手共’로 되어 있는데 모두 잘못된이다. 宋本, 那波本, 全詩에 의거하여 바로잡음. ‘解攜’의 뜻은 ‘離別’ 또는 ‘分手’이다. B본의 箋校: ‘京路’는 盧校에 아마도 ‘京洛’인 듯하다고 하였음. ‘簇’과 ‘簇’은 同字임.
19) 제91수 제1구 제2구 제3구	百花亭上晚徘徊 雲影陰晴掩復開 日色悠揚映山盡	百花亭上晚徘徊 雲影陰晴掩復開 日色悠揚映山盡	B본의 箋校: ‘徘徊’는 全詩에 ‘裴回’임. 城按에도 ‘徘徊’는 또한 ‘裴回’라고 함. ‘雲影’은 ‘雲影’임. B본의 箋校: ‘雲影’의 ‘影’은 宋本, 汪本에 모두 ‘景’임. 城按에 ‘景’은 ‘影’의 本字임. B본의 箋校: ‘映山’의 ‘映’은 宋本에 ‘映’이며 同字임.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20) 제92수 제3구 제6구	天上歡華春有限 憂喜心忘便是禪	天上歡華春有限 憂喜心忘便是禪	B본의 箋校: '歡華'의 '華'는 盧校에 '娛'임. 全詩 注에 '娛'라 한 주석이 있음. 何校에 '華', 蘭雪에도 '華'임. B본의 箋校: '心忘'의 '心'은 汪本, 盧校에 모두 '情'임. 全詩에 '情'이라 한 주석도 있음. 何校에 '情', 蘭雪에도 '心'임.
21) 제94수 제목 제3구 제6구 제8구	石楠樹 徽蓋低垂金翡翠 夏葉濃焚百和香 只教桃柳占年芳	石楠樹 徽蓋低垂金翡翠 夏葉濃焚百和香 只教桃柳占年芳	B본의 箋校: '石楠樹'의 제목이 馬本, 全詩에는 '石榴樹'로 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에 의거하여 교정함. 全詩에는 '石楠樹'의 주석도 있음. '低垂'는 '低垂'임. A본의 '低垂'는 '낮게 들다'이고, B본 '低垂'는 '밑으로 들다'이다. A본의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夏葉'는 '夏蕊'임. '葉'과 '蕊'는 꽃술의 뜻인데 '葉'는 '蕊'의 俗字임. B본의 箋校: '百和'의 '和'는 全詩에는 잘못하여 '合'으로 씀. '柳'는 '柳'임. '柳'와 '柳'는 同字임. B본의 箋校: '柳'는 馬本, 汪本の 注에는 모두 '李'임. 宋本에도 '李'의 주석이 있음. 宋本, 那波本에는 이런 주석이 없음.
22) 제95수 제3구 제5구 제6구 제8구	看院氈留雙白鶴 藥爐有火丹應伏 雲確無人水自春 更期何日得從容	看院氈留雙白鶴 藥爐有火丹應伏 雲確無人水自春(廬山中 雲母多 故以水確搗鍊 俗 呼爲雲確) 更期何日得從容	'氈'과 '氈'는 同字임. '爐'와 '爐'는 同字임. A본에는 '水自春'아래 주가 없고, B본에는 注가 있음.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이 주석이 없음. 汪本에 '雲確'는 馬本에 '水確'라 함. 宋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교정. B본의 箋校: '從容'은 全詩의 注에 의하면, '未知何日得相從'이라고 함.
23) 제96수 제목 제3구 제5구 제6구	風雨晚泊 青苔撲地連春雨 忽忽百年行欲半 茫茫萬事坐成空	風雨夜泊 青苔撲地連春雨 忽忽百年行欲半 茫茫萬事坐成空	'晚'은 '夜'임. B본의 箋校: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는 모두 '晚'이다. 全詩의 注에 '夜'의 주석도 있음. B본의 箋校: '連春雨'의 '春'은 馬本에 '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全詩에는 '香'의 주석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查校에 '宵'라 했지만 뜻에 의거해서 고친 것 뿐이다. '皆'는 '行'임. 해석상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음. '茫茫'은 '茫茫'임. '芒'과 '茫'은 通用字임.
24) 제97수 제2구	曲江池畔杏園邊	曲江池畔杏園邊	B본의 箋校: '杏園'의 '園'은 馬本에 '林'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全詩에는 '林'의 주석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邊'은 '邊'임. '邊'은 '邊'의 俗字임.
25) 제99수 제1구 제5구	宦途堪笑不勝悲 半頭白髮鬢蕭相	宦途堪笑不勝悲 半頭白髮鬢蕭相	B본의 箋校: 『文苑英華』에는 '不勝'의 '勝'이 '勞'로 되어 있고, 全詩의 주에도 '勞'의 주석이 있음. '鬢'은 '鬢'임. '鬢'은 '鬢'과 同字임.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26)제102수 제목 제6구 제7구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 成篇寄水部張員外 隱點青天字一行 好著丹青圖寫取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 成篇寄水部張員外 雁點青天字一行 好著丹青圖寫取	B본의 箋校: 시의 제목 ‘張’ 아래에 「文苑英華」에는 ‘籍’의 글자가 있음. ‘鴈’과 ‘雁’은 同字임. B본의 箋校: 「文苑英華」에는 ‘青天’의 ‘青’이 ‘晴’으로 되어 있음. ‘好着’이 ‘好著’임. ‘着’은 ‘著’의 俗字임. B본의 箋校: ‘好著’은 ‘卽好以之’意 임. B본의 箋校: ‘圖寫’의 ‘寫’는 「文苑英華」 및 全詩에는 ‘畫’임. 「文苑英華」에는 ‘寫. 汪本에는 ‘畫. 全詩에는 ‘寫’의 주석이 있음.
27)제103수 제3구 제6구 제8구	軍門郡閣曾閑否 叢盆思共彩呼盧 自有胸中萬頃漚(微之詩云 孫園虎寺隨宜看 不必遙遙羨鏡湖 故以此戲言答之)	軍門郡閣曾閑否 叢盆思共彩呼盧 自有胸中萬頃漚(微之詩云 孫園虎寺隨宜看 不必遙遙羨鏡湖 故以此戲言答之)	‘郡閣’과 ‘郡閣’임.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고을 관청이라는 뜻이 비슷함. B본의 箋校: ‘盆’이 馬本과 全詩에는 ‘盤’으로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萬頃湖’아래에 주석이 없음.
28)제104수 제1구 제6구	紫薇花對紫薇翁 興善僧庭一大叢	紫薇花對紫薇翁 興善僧庭一大叢	B본의 箋校: ‘紫薇翁’의 ‘微’가 那波本, 汪本에는 ‘薇’로 되어 있으나 잘못임. 城按에는 ‘唐開元間改中書省爲紫微省 取象於紫微垣 居易曾官中書舍人 故自稱紫薇翁’의 주석이 있음. B본의 箋校: ‘興善僧庭一大叢’의 주석은 ‘指長安興善寺之紫薇花’임.
29)제105수 제1구 제2구 제4구	三盞醺醺四體融 妓亭簷下夕陽中 一曲雲和愛未終	三盞醺醺四體融 妓亭簷下夕陽中 一曲雲和愛未終	‘醺’과 ‘醺’은 同字임. B본의 箋校: ‘妓亭’의 ‘亭’이 何校, 盧校에는 ‘停’으로 되어 있음. B본의 箋校: ‘雲和’의 ‘雲’이 馬本과 全詩에는 ‘纈’로 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30)제106수 제2구 제4구 제8구	烏鵲河頭水欲銷(黃鸝防名烏鵲河名) 紅欄三百九十橋(蘇之官橋大數) 祇從今日到明朝	烏鵲河頭水欲銷(黃鸝防名烏鵲河名) 紅欄三百九十橋(蘇之官橋大數) 只從前日到今朝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水欲銷’ 아래에 주석이 없음. B본의 箋校: ‘九十橋’ 아래 小注 ‘大數’가 馬本에는 ‘之數’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宋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祇從今日到明朝’은 ‘只從前日到今朝’임. 이 구절은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음.
31)제107수 제5구	薄暮何人吹鶯篋	薄暮何人吹鶯篋	‘鶯篋’은 ‘鶯篋’임. 피리라는 뜻으로 B본의 ‘鶯篋’이 맞는 글자임.
32)제108수 제목 제4구	眼病 不是春天亦見花(已上四句 皆病眼中所見者)	眼病二首 不是春天亦見花(已上四句 皆病眼中所見者)	A본은 제목이 ‘眼病’인데, B본은 ‘二首’가 더 추가되어 있음. A본은 B본의 제1, 제2수 중 제1수만 선택해서 A본의 제목에 ‘二首’가 빠진 것임.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見花’아래에 주석이 없음.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묘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33)제109수 제2구 제4구 제5구 제8구	牧守當今當好宜 五年風月詠將殘 幾時酒醜曾拋却 詩情酒興漸闌珊	牧守當今當好宜 五年風月詠將殘 幾時酒醜曾拋却 詩情酒興漸闌珊(將殘一作來殘)	B본의 箋校: '當好宜'의 '當'은 何校는 黃校에 근거하여 '是'라고 함. B본의 箋校: '將殘'의 '將'은 何校는 黃校에 근거하여 '來'라고 함. 汪本, 全詩에도 '來'라고 한 주석이 있음. '醜'은 '醜'임. 비슷한 뜻의 글자임. A본 8구 '闌珊' 아래에 주석이 없고, B본 8구 '闌珊' 아래에 주석이 있음.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闌珊' 아래에 주석이 없음. 宋本은 馬本과 같음.
34)제110수 제2구 제4구 제8구	養得經年鬢漸紅 每因餽食暫閉籠 深藏牢閉後房中	養得經年鬢漸紅 每因餽食暫閉籠 深藏牢閉後房中	B본의 箋校: '經年'의 '經'은 馬本에는 '今'으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에 의거하여 개정함. B본의 箋校: '暫閉'의 '暫'은 馬本에는 '漸'으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後房'은 '後房'임. 뜻으로 보아 B본의 '後房'이 옳음. B본의 箋校: '後房'의 '後'는 『文苑英華』에는 '在'임.
35)제113수 제6구 제7구 제8구	亦曾騎馬詠紅裙(先生在杭州日有歌云 聽唱黃雞與白日 又有詩云 羞紅騎馬是何人) 吳娘暮雨蕭蕭曲 自別江南更不聞(江南吳二娘曲詞云 暮雨蕭蕭郎不歸)	亦曾騎馬詠紅裙(予在杭州日有歌云 聽唱黃雞與白日 又有詩云 羞紅騎馬是何人) 吳娘暮雨蕭蕭曲 自別江南更不聞(江南吳二娘曲詞云 暮雨蕭蕭郎不歸)	'紅裙'아래의 小注에 '先生'은 '予'이고, '羞'은 '著'임. '先生'과 '予'는 인칭의 문제이고 '羞'은 '著'의 俗子임. B본의 箋校: '紅裙' 아래에 那波本에는 注가 없음. B본의 箋校: '吳娘'의 '娘'은 馬本에는 '姬'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B본의 箋校: '不聞' 아래에 那波本에는 注가 없음.
36)제114수 제1구 제7구	欲將珠匣青銅鏡 不似杜康神用速	欲將珠匣青銅鏡 不似杜康神用速	B본의 箋校: '珠匣'의 '珠'는 汪本, 全詩에는 '宋'임. B본의 箋校: '不似'의 '似'는 馬本에는 '是'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는 '是'라고 한 주석이 있지만 잘못된 것임.
37)제116수 제5구	風蕩鸛船初破漏	風蕩鸛船初破漏	B본의 箋校: 鸛船의 '鸛'은 馬本의 注에 '伊甸切'이라 하였음.
38)제117수 제목	題崔常侍濟上別墅	題崔常侍濟上別墅(時常侍以長告罷歸 今故先報泉石)	A본의 제목에는 小注가 없고, B본에는 제목에 小注가 있음. B본의 箋校: 제목 아래에 那波本에는 注가 없음.
39)제118수 제목 제3구 제7구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 陰德自然宜有慶(于公陰德其後蕃昌) 莫慮鸛雛無浴處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 陰德自然宜有慶(于公陰德其後蕃昌) 莫慮鸛雛無浴處	B본의 箋校: '於言'의 二字는 宋本에는 어그러졌고, '今年'아래 馬本에는 '冬'字가 탈락되었는데,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음. '着'은 '著'임. 비슷한 뜻의 글자임. A본은 칠언시 제1수, 제2수중에 제1수만 선택하고, B본은 제1수, 제2수가 모두 수록되었음. B본의 箋校: '自嘲'는 宋本, 那波本에는 제2수의 별도 제목으로 되어 있음. '有慶'의 아래의 小注에 '蕃昌'이 '蕃昌'임. B본의 箋校: '有慶'아래 那波本에는 注가 없음. 宋本의 小注에는 '蕃'아래에 '昌'이 빠져 있음. 小注의 '雛'가 '鸛'임. B본의 '鸛雛'의 글자가 더 옳음. '鸛雛'는 봉황 종류임.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40)제119수 제1구 제8구	卯時偶飲齋時臥 甘從妻喚作劉靈	卯時偶飲齋時臥 甘從妻喚作劉伶	B본의 箋校: '齋時'의 '齋'는 那波本에는 잘못되어 '齊'로 되어 있음. '劉靈'의 '靈'이 '伶'으로 되어 있음. B본의 箋校: '劉伶'의 '伶'은 宋本과 何校에는 모두 '靈'으로 되어 있음. 全詩의 주에도 '靈'의 주석이 있음. 盧校에도 '伶'의 본래 이름은 '靈'임.
41)제120수 제8구	門前風雨冷脩脩	門前風雨冷脩脩	'脩脩'는 '脩脩'임. '脩'와 '修'는 同字임.
42)제122수 제1구 제4구 제8구	雙鬢莫期今老矣 裴使君前作少年 須詭奇章置一筵	霜鬢莫期今老矣(傳曰 今老矣 無能爲也) 裴使君前作少年(陳商郎中酒戶消滴 裴治使君年九十餘) 須詭奇章置一筵	'雙鬢'의 '雙'이 '霜'임. B본의 箋校: '霜鬢'의 '霜'은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는 '雙', 全詩에는 '雙'의 주석이 있음. A본에는 '老矣'아래 注가 없고, B본 '老矣'아래 '傳曰 今老矣 無能爲也'라는 注가 있음. B본의 箋校: 那波本에는 注가 없음. 注中 '傳曰'은 宋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A본에는 '作少年'아래 注가 없고, B본 아래 '陳商郎中酒戶消滴 裴治使君年九十餘'의 注가 있음. B본의 箋校: '須詭'의 '詭'는 馬本과 全詩에는 '擬'로 주석이 되었는데 잘못이다.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43)제125수 제2구	作底歡娛過此辰	作(音佐)底歡娛過此辰	A본에는 '作'아래 注가 없고, B본 '作'아래 '音佐'의 注가 있음. B본의 箋校: '作底'의 '作'은 馬本과 那波本の '作'의 아래에는 注가 없음. 宋本, 汪本에 의거하여 보낸 것임. 全詩아래의 주에는 '古做字'라 하였음.
44)제126수 제1구 제6구	窈明簾薄透朝光 不醉爭銷得日長	窈明簾薄透朝光 不醉爭銷得晝長	'窈明'의 '窈'이 '窗'임. '窗'이 '窈'의 本字임. '日長'의 '日'이 '晝' 임. B본의 箋校: '晝長'의 '晝'는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는 모두 '日'임.
45)제127수 제1구	暮去朝來無歇期	暮去朝來無歇期	B본의 箋校: '暮去朝來'는 馬本에는 '暮來朝去'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46)제128수 제2구 제5구	嫋嫋涼風起漕河 鶯臨池立窺魚筍	嫋嫋涼風起漕河 鶯臨池立窺魚筍	B본의 箋校: '漕河'의 '漕'는 馬本과 全詩에는 모두 '在到切'의 주석이 있음. B본의 箋校: '魚筍'의 '筍'는 馬本에는 '擧後切'의 주석이 있음.
47)제129수 제목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	'酬'과 '酬'는 同字임.
48)제130수 제목 제5구 제6구	開成大行皇帝挽歌詞 月佐儀仗辭蘭路 風引旒簾入栢城	開成大行皇帝挽歌詞四 首奉勅撰進 月低儀仗辭蘭路 風引旒簾入栢城	A본은 제목이 '開成大行皇帝挽歌詞'인데, B본은 '四首奉勅撰進'이 더 추가되어 있음. A본은 B본의 제1, 제2, 제3, 제4수 중 제4수만 선택해서 A본의 제목에 '四首奉勅撰進'이 빠진 것임. '月佐'는 '月低'임. '달빛은 나직히'의 뜻으로 A본의 뜻이 더 적합함. '旒簾'는 '旒簾'임. '피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B본의 뜻이 더 옳음.
49)제131수 제2구	又脫生衣著熟衣	又脫生衣著熟衣	'著'은 '著'의 俗字임.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혼임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50)제132수 제3구 제8구	已將心出浮雲外 別是人間夢淨翁	已將心出浮雲外(維摩經云 是身如浮雲也) 別是人間清淨翁	A본에는 '浮雲外'아래注가 없고, B본 아래 '維摩經云 是身如浮雲也'의注가 있음. B본의箋校: '浮雲外'아래 那波本에는注가 없음. '夢淨翁'의 '夢'이 '清'임.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음.
51)제133수 제목 제4구	偶吟自慰兼呈夢得 又古世間長命人(時先生與夢得年皆七十)	偶吟自慰兼呈夢得(予與夢得甲子同 今俱七十) 又古世間長命人	A본에는 제목아래注가 없고, B본은 제목 아래 '予與夢得甲子同 今俱七十'의注가 있음. B본의箋校: 제목아래 那波本에는注가 없음. A본에는 '長命人'아래 '時先生與夢得年皆七十'의注가 있고, B본에는 '長命人'아래注가 없음.
52)제134수 제목 제2구 제3구 제5구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 雪夜同宿小酌 瑣園駁正犯龍鱗(二人當官盛事 爲時所稱也) 那知近地齊名客 一盞寒燈雲外夜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 雪夜同宿小酌 瑣園駁正犯龍鱗(二人當官盛事 爲時所稱也) 那知近地齊居客 一盞寒燈雲外夜	B본의箋校: '小酌'아래 馬本에는 '小的'이라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 '瑣園'은 '瑣閣'임. '環'와 '瑣'는 同字임. B본의箋校: '龍鱗'아래 那波本에는注가 없음. '齊名'의 '名'은 '居'임. B본의箋校: '齊居'는 宋本, 那波本, 何校에는 모두 '齊名'으로 주석되어 있음. 全詩에는 '名'으로 주석되어 있음. '酌'과 '薰'은 同字임.

<전주(箋注)의 출처>

『문원영화(文苑英華)』: 명(明) 용영연간(隆慶, 1567-1572)의 간본임.
 왕본(汪本): 청(淸) 강희(康熙) 43년(1704) 왕립명(汪立名)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刊本)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노교(盧校): 청(淸) 노문초(盧文弼) 군서습포교(群書拾補校)의 『백씨문집(白氏文集)』.
 전시(全詩): 청(淸) 강희(康熙) 46년(1707) 양주시국(揚州詩局) 간본(刊本)의 『전당시(全唐詩)』.
 송본(宋本): 문학고전간행사(文學古典刊行社) 영인의 송(宋) 소흥(紹興, 1131-1162) 본(本)인 『백씨문집(白氏文集)』.
 나파본(那波本): 사부총간(四部叢刊) 영인의 일본 나파도원(那波道園) 번각의 송본(宋本)인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마본(馬本):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
 하교(何校): 북경도서관(北京圖書館) 소장의 하작(何焯)이 교정한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인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황교(黃校): 황의(黃儀) 교정본(校訂本).
 성안(城按): 백거이(白居易) 저(著),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1-5.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2008.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다.

2)의 제74수 A본의 제5구 ‘紅袖職能誇柿蒂’가 B본에는 ‘紅袖職能誇柿蒂’이다. ‘蒂’와 ‘蒂’는 동자(同字)이다. 4)의 제76수 제1구는 A본의 ‘時亂年飢世業空’이 B본에는 ‘時亂年荒世業空’이고, 제5구는 A본의 ‘吊影分爲千里鴈’이 B본에는 ‘吊影分爲千里雁’이다. 제1구의 ‘年飢’가 ‘年荒’으로 되어 있는데,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年荒’의 ‘荒’은 宋本, 那波本, 全詩, 盧校에는 모두 ‘饑’로 되어 있고, 全詩의 주에는 ‘荒’의 주석도 있어 같은 뜻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제5구의 ‘吊’는 ‘吊’의 속자(俗字)이고, ‘鴈’과 ‘雁’은 동자(同字)이다. 6)의 제78수 A본의 제4구 ‘滿幅風生秋水文’이 B본에는 ‘滿幅風生秋水紋’이다. ‘文’과 ‘紋’은 B본의 전교에 의하면 ‘水紋’의 ‘紋’이 宋本, 那波本에는 ‘文’인 것으로 보아 같은 뜻의 글자이다. 8)의 제80수 A본의 제1구 ‘詩情書意兩慙慙’이 B본에는 ‘詩情書意兩殷勤’이다. ‘慙慙’과 ‘殷勤’은 뜻이 같은 글자이다. 10)의 제82수 A본의 제2구 ‘雪裏歡游莫厭頻’이 B본에는 ‘雪裏歡游莫厭頻’이다. ‘厭’과 ‘厭’은 동자(同字)이다. 13)의 제85수 A본의 제8구 ‘著書盈帙鬢毛斑’이 B본에는 ‘著書盈帙鬢毛斑’이다. ‘斑’과 ‘斑’은 통용자(通用字)이다. 15)의 제87수 제2구는 A본의 ‘今作江湖老倒翁’이 B본에는 ‘今作江湖潦倒翁’이고, 제6구는 A본의 ‘酒伴衰顏只暫紅’이 B본에는 ‘酒伴衰顏只暫紅’이다. 제2구의 ‘老倒’가 ‘潦倒’로 되어 있는데, B본의 전교에 의하면, ‘潦倒’의 ‘潦’는 宋本, 那波本에 모두 ‘老’이고, 全詩에도 ‘老’라 한 주석도 있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제6구는 ‘暫’이 ‘暫’으로 되어 있는데 ‘暫’과 ‘暫’은 동자(同字)이다. 16)의 제88수 제2구는 A본의 ‘應似霓裳趨管絃’이 B본에는 ‘應似霓裳趨管絃’이고, 제3구는 A본의 ‘艷動舞裙渾是火’가 B본에는 ‘豔動舞裙渾是火’이다. 제2구는 ‘趨’이 ‘趨’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비슷한 글자이고, 제3구는 ‘艷’은 ‘豔’으로 되어 있는데, ‘豔’과 ‘艷’은 동자(同字)이다. 17)의 제89수 제6구 A본의 ‘衙鼓聲前未有塵’이 B본에는 ‘衙鼓聲前未有塵’이다. ‘鼓’가 ‘鼓’로 바뀌었다. ‘鼓’는 ‘鼓’의 속자(俗字)이다. 18)의 제90수 A본의 제6구 ‘殘酒重傾簇馬蹄’가 B본에는 ‘殘酒重傾簇馬蹄’이다. ‘簇’과 ‘簇’은 동자(同字)이다. 19)의 제91수 A본의 제2구 ‘雲景陰晴掩復開’가 B본에는 ‘雲影陰晴掩復開’이다. ‘景’은 ‘影’으로 되어 있는데, B본의 전교에 의하면, ‘雲影’의 ‘影’은 宋本, 汪本에 모두

‘景’이다. 주금성은 이에 대해 ‘景’은 ‘影’의 본자(本字)라 하였다. 21)의 제94수 제6구는 A본의 ‘夏藥濃焚百和香’가 B본에는 ‘夏蕊濃焚百和香’이고, 제8구는 A본의 ‘只教桃柳占年芳’이 B본에는 ‘只教桃柳占年芳’이다. 제6구는 ‘夏藥’는 ‘夏蕊’로 되어 있는데, ‘藥’와 ‘蕊’는 꽃술의 뜻으로 ‘藥’는 ‘蕊’의 속자(俗字)이다. 제8구는 ‘柳’는 ‘柳’으로 되어 있는데, ‘柳’와 ‘柳’는 동자(同字)이다. 22)의 제95수 제3구는 A본의 ‘看院祗留雙白鶴’이 B본에는 ‘看院祗留雙白鶴’이고, 제5구는 A본의 ‘藥鑪有火丹應伏’이 B본에는 ‘藥爐有火丹應伏’이다. 제3구는 ‘祗’는 ‘祗’로 되어 있는데, 동자(同字)이고, 제5구는 ‘鑪’는 ‘爐’로 되어 있는데, 동자(同字)이다. 24)의 제97수 제2구는 A본의 ‘曲江池畔杏園邊’이 B본에는 ‘曲江池畔杏園邊’이다. ‘邊’은 ‘邊’으로 되어 있는데, ‘邊’은 ‘邊’의 속자(俗字)이다. 23)의 제96수 제6구 A본의 ‘茫茫萬事坐成空’이 B본에는 ‘茫茫萬事坐成空’이다. ‘茫茫’이 ‘茫茫’으로 바뀌었다. ‘芒’과 ‘茫’은 통용자(通用字)이다. 25)의 제99수 제5구는 A본의 ‘半頭白髮慙蕭相’이 B본에는 ‘半頭白髮慙蕭相’이다. ‘慙’은 ‘慙’으로 되어 있는데, ‘慙’은 ‘慙’과 동자(同字)이다. 26)의 제102수 제6구는 A본의 ‘鴈點青天字一行’이 B본에는 ‘雁點青天字一行’이고, 제7구는 A본의 ‘好着丹青圖寫取’가 B본에는 ‘好著丹青圖寫取’이다. 제6구는 ‘鴈’이 ‘雁’으로 되어 있는데, 동자(同字)이다. 제7구는 ‘好着’이 ‘好著’으로 되어 있는데, ‘着’은 ‘著’의 속자(俗字)이다. B본의 전(箋)에 의하면, ‘好著’은 ‘即好以之意’의 뜻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보면, 39)의 제118수 제목은 A본의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着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가 B본에는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什一以相賀一以自嘲’이고, 49)의 제131수 제2구 A본의 ‘又脫生衣着熟衣’가 B본에는 ‘又脫生衣著熟衣’이다. A본은 모두 ‘着’이, B본은 ‘著’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의 제103수 제3구 A본의 ‘軍門郡閣會閑否’가 B본에는 ‘軍門郡閣會閑否’이다. ‘郡閣’이 ‘郡閣’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고을 관청이라는 뜻이 비슷하다. 29)의 제105수 제1구 A본의 ‘三醞醞醞四體融’가 B본에는 ‘三盞醞醞四體融’이고, 33)의 제109수 제5구 A본의 ‘幾時酒醞會拋却’이 B본에는 ‘幾時酒盞會拋却’이며, 52)의 제134수 제5구 A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의 ‘一醞寒燈雲外夜’이 B본에는 ‘一盞寒燈雲外夜’이다. 제105수와 제1구와 제109수 제5구 및 제134수 제5구에는 모두 ‘醞’은 ‘盞’으로 되어 있는데, 동자(同字)이다. 41)의 제120수 제8구는 A본의 ‘門前風雨冷脩脩’가 B본에는 ‘門前風雨冷修修’이다. ‘脩脩’는 ‘修修’로 되어 있는데, 동자(同字)이다. 44)의 제126수 제1구는 A본의 ‘窻明簾薄透朝光’가 B본에는 ‘窗明簾薄透朝光’이다. ‘窻明’의 ‘窻’이 ‘窗’으로 되어 있는데, ‘窗’이 ‘窻’의 본자(本字)이다.

둘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23)의 제96수 제5구 A본의 ‘忽忽百年皆欲半’이 B본은 ‘忽忽百年行欲半’이다. ‘皆’가 ‘行’으로 바뀌었다. A본 5구와 6구의 해석은 ‘어느 덧 백년의 인생이 거의 중반을 향하고 있으니 만사는 아득아득 이룩한 것 없어라’인데, B본 5구와 6구의 해석은 ‘어느 덧 일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 중반에 이르러 하니 만사는 아득아득 이룩한 것 없어라’이다. 너무 대조적인 글자여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50)의 제132수 제8구 A본의 ‘別是人間夢淨翁’이 B본은 ‘別是人間淸淨翁’이다. ‘夢’이 ‘淸’으로 바뀌었다. A본 7구와 8구의 해석은 ‘세상 인연과 세속 생각 모두 사라지니 별다른 세상의 맑은 세계를 꿈꾸는 늙은이일세’인데, B본 7구와 8구의 해석은 ‘세상 인연과 세속 생각 모두 사라지니 별다른 세상의 맑고 맑은 세계의 늙은이 일세’이다. 너무 대조적인 글자여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10) 제82수 제1구는 A본의 ‘水南水北雪紛紛’이 B본에는 ‘水南水北總紛紛’이다. ‘雪紛紛’이 ‘總紛紛’으로 바뀌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宋本, 那波本, 盧校에 모두 ‘雪’이고, 汪本에도 ‘雪’로 주석된 것이 있으니, A본의 ‘雪’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시구의 해석도 ‘강남과 강북에 눈이 분분한데’로 해야 맞다. 21)의 제94수 제3구 A본의 ‘繖蓋_伍垂金翡翠’이 B본에는 ‘繖蓋_低垂金翡翠’이다. ‘伍垂’는 ‘低垂’로 바뀌었다. A본의 ‘伍垂’는 ‘낮게 들다’이고, B본 ‘低

垂'는 '밑으로 들다'이다. 시구의 해석도 '일산은 금비취를 나직이 든 것 같고'이니 A본의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40)의 제119수 제8구 A본의 '甘從妻喚作劉靈'이 B본에는 '甘從妻喚作劉伶'이다. '劉靈'은 '劉伶'으로 바뀌었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劉伶'의 '伶'은 宋本과 何校에는 모두 '靈'으로 되어 있고, 全詩의 주에도 '靈'의 주석이 있으며, 盧校에도 '伶'의 본래 이름은 '靈'이라고 하였다. A본의 '靈'이 맞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4)의 제126수 제6구 A본의 '不醉爭銷得日長'이 B본에는 '不醉爭銷得畫長'이다. '日長'은 '畫長'으로 바뀌었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畫長'의 '畫'는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는 모두 '日'이다. 시구의 해석도 '긴 날을 취하지 않고서야 어찌 보내랴'이니 A본의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48)의 제130수 제5구 A본의 '月低儀仗辭蘭路'이 B본에는 '月低儀仗辭蘭路'이다. '月低'는 '月低'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은 '달빛 나직히 장의향렬 비치는 중에 란로(蘭路: 난향이 있는 궁중의 길)를 떠나가고'이니 A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52)의 제134수 제3구 A본의 '那知近地齊名客'이 B본에는 '那知近地齊居客'이다. '齊名'은 '齊居'로 바뀌었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齊居'는 宋本, 那波本, 何校에는 모두 '齊名'으로 주석되어 있고, 全詩에도 '名'으로 주석되어 있다. 시구의 해석도 '어찌 알았으랴, 가까운 곳에서 명망이 같은 나그네가'이니, A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10)의 제82수 제6구 A본의 '紅繚爐香竹葉春'이 B본에는 '紅療爐香竹葉春'이다. '繚'가 '療'로 바뀌었다. A본의 '繚'는 감길 료이고, B본의 '療'는 피어날 료이다. 시구의 해석은 '피어나는 향불은 대잎의 봄일세'이니, B본의 뜻이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1)의 제107수 제5구 A본의 '薄暮何人吹鬢栗'이 B본에는 '薄暮何人吹鬢策'이다. '鬢栗'은 '鬢策'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을 보면, '저물녘 그 누가 가로부는 피리를 불며'이다. '栗'은 '밤나무 툄'이고, '策'은 '피리 툄'이어서 B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34)의 제110수 제8구 A본의 '深藏牢閉後旁中'이 B본에는 '深藏牢閉後房中'이다. '後旁'은 '後房'으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을 보면, ‘꼴방 속에 깊이 숨겨둠과 비슷하리라’이니, B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39)의 제118수 제7구 A본의 ‘莫慮鵷雛無浴處’가 B본에는 ‘莫慮鵷鷁無浴處’이다. ‘鵷雛’는 ‘鵷鷁’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을 보면, ‘원추새들 먹감을 곳 없음을 염려하지 마라’이다. ‘雛’는 ‘병아리 추’이고, ‘鷁’는 ‘원추새 추’이니, B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48)의 제130수 제6구 A본의 ‘風引筊簫入栢城’이 B본에는 ‘風引筊簫入栢城’이다. ‘筊簫’는 ‘筊簫’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을 보면, ‘바람이 피리소리를 이끌어 栢城(능)으로 들어가네’이다. ‘簫’는 ‘맑은 대쭈소’이고, ‘簫’는 ‘통수 소’이니, B본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② B본에 나타나는 전주의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3)의 제75수 제1구는 A본과 B본이 모두 ‘去歲歡遊何處去’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馬本, 汪本, 全詩의 주에 제1구 ‘何處去’의 ‘去’가 ‘好’로도 썼고, 宋本의 주에도 ‘何處去’가 ‘何處好’로도 썼다. 제1구의 해석은 ‘何處去’로 하면 ‘지난해 즐겁게 놀았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나’이고, ‘何處好’로 하면 ‘지난해 즐겁게 놀았는데 어디에 머문 곳이 좋았는가’이다. ‘何處好’의 해석이 매우 부드럽고 뒤에 이어지는 제2구인 ‘곡강 서쪽 언덕이요 행원의 동쪽이라’와도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다. 5)의 제77수 제7구는 A본과 B본이 모두 ‘惆悵舊遊無復到’이고, 제8구는 ‘菊花時節羨君廻’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無復到’의 ‘無’는 「文苑英華」와 全詩에는 ‘那’로 쓴다. 汪本의 주에도 ‘那’이다. ‘羨’은 汪本, 全詩에는 ‘待’로 쓴다. 제7구의 해석은 ‘無復到’로 하면 ‘옛날 노닐던 곳에 다시 오지 못함이 서글픈데’이고, ‘那復到’로 하면 ‘옛날 노닐던 곳에 언제 다시 돌아올까 서글픈데’이다. ‘那復到’의 해석이 매우 부드럽다. 제8구의 해석은 ‘羨’으로 하면 ‘국화시절에 그대 돌아가는 것 부럽기만 하구나’이고, ‘待’로 하면 ‘국화시절에 그대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지는구나’이다. ‘待’의 해석이 시의 의미 전달에 더 합당하다. 전교(箋校)를 참고하여 제7구와 8구를 연결하면 ‘옛날 노닐던 곳에 언제 다시 돌아올까 서글픈데, 국화시절에 그대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지는구나’여서 해석이 매우 부드럽고 의미 전달이 분명해진다. 22)의 제95수 제8구는 A본과 B본이 모두 ‘更期何日得

從容'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從容'은 全詩의 주에 의하면, '未知何日得相從'이라고 하였다. 제8구의 해석은 '어느 날 본받게 될런지 다시 기약할 수 있을까?'인데, 전시의 주를 참고하면 '어느 날에 본받게 될지 알 수 없다'이다. 제7구와 해석을 연결하면, '참동계에 관한 일을 물으려면 어느 날에 본받게 될지 알 수 없다'여서 의미상의 연결이 명확해진다. 28)의 제104수 제6구는 A본과 B본이 모두 '興善僧庭一大叢'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이 시구에 대한 주석이 '指長安興善寺之紫薇花'라고 하였다. 이 주석을 참고하면 '장안 흥선사(興善寺) 스님 계신 뜰에는 자미화가 무성하구나'라고 해석이 명확해진다.

③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다르기도 하고,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

1)의 제73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江樓夕望招客'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咸淳臨按志』에는 '江樓夕望招客'의 제목이 '江樓夕望'이다. 이 시는 장경 3년(823) 7월에 중서사인(中書舍人)이었다가 항주에 출수(出守)하는 길에 강루의 생활상을 그린 것으로 '招客'이 없어도 시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4)의 제76수 제목은 A본의 '自河南經亂關內飢...'가 B본에는 '自河南經亂關內阻饑...'이다. '飢'와 '饑'는 뜻이 동자(同字)여서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11)의 제83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江樓月'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文苑英華』에는 '江樓月'이 '江樓望月'이다. 이 시는 백거이가 38세이던 원화 4년(809)에 장안에 있으면서 가릉강(嘉陵江) 강변의 누각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사천에 있는 원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이다. 따라서 제목은 '江樓望月'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23)의 제96수 A본의 제목은 '風雨晚泊'이고, B본의 제목은 '風雨夜泊'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는 모두 '晚'이고, 全詩의 주에 '夜'의 주석도 있다. 이 시는 백거이가 47세이던 원화 13년(818)에 강주에서 강주사마 때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밤에 묵으며 지은시이다. 시의 내용과 B본의 전교를 참고하면 A본의 제목인 '風雨晚泊'이 더 합당하다. 26)의 제102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이다. B본의 전교에 의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하면, 『文苑英華』에는 ‘張’ 아래에 ‘籍’의 글자가 있다. 제102수의 제목은 주석에 의해 백거이가 53세이던 장경 4년(824)에 항주에서 항주자사 때 강루에서 저녁 조망 아름다운 기이한 경치를 감상하고 시 한편을 써서 수부 장적(張籍)에게 보낸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2) A본의 제목은 ‘眼病’이고, B본의 제목은 ‘眼病二首’이다. B본에는 ‘二首’가 더 추가되어 있다. A본은 B본의 제1, 제2수 중 제1수만 선택해서 A본의 제목에 ‘二首’가 빠진 것이다. 47)의 A본의 제목은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이고, B본의 제목은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이다. ‘酬’와 ‘酬’는 동자(同字)여서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48)의 A본의 제목은 ‘開成大行皇帝挽歌詞’이고, B본의 제목은 ‘開成大行皇帝挽歌詞四首奉勅撰進’이다. B본에는 ‘四首奉勅撰進’이 더 추가되어 있다. A본은 B본의 제1, 제2, 제3, 제4수 중 제4수만 선택해서 A본의 제목에 ‘四首奉勅撰進’이 빠진 것이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율시는 62수인데 제73수-제134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평성(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眞’ 8회, ‘東’ 8회, ‘支’ 7회, ‘先’ 7회, ‘陽’ 6회이다. 칠언율시의 경우에는 1·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에서 압운하지 않는 경우는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75수, 제77수, 제78수, 제82수, 제84수, 제86수, 제87수, 제88수, 제93수, 제95수, 제96수, 제97수, 제98수, 제106수, 제107수, 제108수, 제109수, 제112수, 제113수, 제114수, 제116수, 제118수, 제119수, 제121수, 제122수, 제123수, 제125수, 제134수 등이다. 이들 칠언율시는 61수는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주금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3수, 권14/3수, 권15/5수, 권16/6수, 권17/3수, 권19/3수, 권20/4수, 권23/1수, 권24/7수, 권25/3수, 권26/3수, 권28/4수, 권34/9수, 권

35/4수, 권36/1수, 권37/1수이다. 1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도합 62수이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시기는 20대 1수, 30대에 5수, 40대에 14수, 50대에 22수, 60대 15수, 70대 4수, 기타 2수이다. 50대의 저작이 22수로 가장 많이 선집 되었고, 다음은 60대 15수, 40대 14수, 30대와 70대가 4수, 20대가 1수, 기타 1수는 시기를 알 수 없었다. 저작 장소는 낙양 24수, 강주 10수, 장안 8수, 소주 8수, 향주 5수, 장안-강주 도중 4수, 제원 1수, 장소미상 2수였다. 칠언율시의 저작 장소는 주로 낙양이 중심이었고 다음은 강주, 장안, 소주, 향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30대에 장안에서 풍유시를 지었고, 40대에 강주에서 풍유시와 한적시를 지었으며, 50대는 장안, 향주, 소주, 낙양에서 비풍유시를 지었고, 60대와 70대는 낙양에서 비풍유시들을 지었다.

2) 『향산삼체법』 칠언율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인물교류’ 28수, ‘감회’ 19수, ‘풍광’ 15수로 3개 분야의 62수이다. 백거이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은 28수이다. 이들 시에서 백거이와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이며 27명이다. 원진이 제83수, 제103수, 제116수, 제118수의 4수, 유우석이 제82수, 제122수, 제126수, 제133수의 제4수, 우승유가 제122수, 제123수, 제127수의 3수이며, 이잉숙(李仍叔)이 제82수, 제134수의 2수이다. 기타 23명은 모두 각 1수이다. 백거이가 감회를 읊은 시는 19수이다. 낙양 9수, 소주 6수, 강주 2수, 향주 1수, 장안 1수이다. 백거이가 풍광을 읊은 시는 15수이다. 향주 2수, 장안 2수, 장안-강주 도상 3수, 강주 5수, 소주 2수, 장소미상 1수이다.

3)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과 중국의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의 『백거이집전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는데, ‘年飢’와 ‘年荒’, ‘文’과 ‘紋’, ‘慇懃’과 ‘殷勤’, ‘老倒’와 ‘潦倒’는 같은 뜻의 글자이고, ‘趁’과 ‘趨’, ‘郡閣’과 ‘郡閣’은 뜻이 비슷한 글자이다. ‘鴈’과 ‘雁’, ‘獸’과 ‘厭’, ‘豔’과 ‘艷’, ‘暫’과 ‘暫’, ‘蒺’과 ‘簇’, ‘柳’와 ‘柳’, ‘祗’와 ‘祗’, ‘鑪’와 ‘爐’, ‘瓊’과 ‘瑠’, ‘蒂’와 ‘蒂’, ‘慚’은 ‘慙’, ‘醜’과 ‘羞’, ‘脩’와 ‘修’는 동자(同字)이다. ‘吊’는 ‘弔’의, ‘鼓’는 ‘鼓’의, ‘藥’는 ‘蕊’, ‘邊’은 ‘邊’의, ‘着’은 ‘著’의 속자(俗字)이고, ‘景’은 ‘影’의, ‘窗’은 ‘窓’의 본자(本字)이며, ‘班’과 ‘斑’, ‘芒’과 ‘茫’은 통용자(通用字)이다. 둘은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忽忽百年皆欲半’과 ‘忽忽百年行欲半’의 ‘皆’와 ‘行’, ‘別是人間夢淨翁’과 ‘別是人間清淨翁’의 ‘夢’과 ‘清’이다. 이들은 너무 대조적인 글자여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셋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雪紛紛’과 ‘總紛紛’의 ‘雪’, ‘伍垂’와 ‘低垂’의 ‘伍’, ‘劉靈’과 ‘劉伶’의 ‘靈’, ‘日長’과 ‘晝長’의 ‘日’, ‘月伍’와 ‘月低’의 ‘伍’, ‘齊名’과 ‘齊居’의 ‘名’은 B본 전교의 주석과 시구의 해석상 A본의 글자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紅繚’와 ‘紅燎’의 ‘燎’, ‘鶯栗’과 ‘鶯策’의 ‘策’, ‘後旁’과 ‘後房’의 ‘房’, ‘鸕雛’와 ‘鸕鷀’의 ‘鷀’, ‘笳蕭’와 ‘笳簫’의 ‘簫’는 B본 전교의 주석과 시구의 해석상 B본의 글자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B본에 나타나는 전주의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何處去’의 ‘去’가 ‘好’로, ‘無復到’의 ‘無’가 ‘那’로, ‘羨’이 ‘待’로, ‘從容’이 ‘未知何日得相從’으로, ‘興善僧庭一大叢’이 ‘指長安興善寺之紫薇花’로 주석이 된 것을 참조하면 본문의 해석이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셋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다르기도 하고,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 ‘江樓夕望招客’은 B본의 전교에 ‘江樓夕望’인데, ‘招客’이 없어도 시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江樓月’은 B본의 전교에 ‘江樓望月’인데, ‘江樓望月’이 시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風雨晚泊’과 ‘風雨夜泊’은 시의 내용과 B본의 전교를 참고하면 A본의 제목인 ‘風雨晚

泊'이 더 합당하다.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는 B본의 전교에 '張' 아래에 '籍'의 글자가 있어 장원외(張員外)가 장적(張籍)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과 '九月八日酬黃甫十見贈'의 '酬'는 '酬' 그리고 '自河南經亂關內飢...'와 '自河南經亂關內阻饑...'의 '飢'는 '饑'는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 동자(同字)여서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眼病'과 '眼病二首'는 B본에는 '二首'가 더 추가되어 있다. A본은 B본의 제1, 제2수 중 제1수 만을 택해서 A본의 제목에 뒷부분인 '二首'가 빠진 것이다. '開成大行皇帝挽歌詞'와 '開成大行皇帝挽歌詞四首奉勅撰進'은 B본에 '四首奉勅撰進'이 더 추가되어 있다. A본이 B본의 제1, 제2, 제3, 제4수 중 제4수 만을 택해서 A본의 제목에 뒷부분인 '四首奉勅撰進'이 빠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 姜順愛.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 박민웅. “牛僧儒傳考.” 『중국어문학논집』 제9호(1997. 8). 483-502.
- 白居易 著, 李瑋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중종 10년(1515)경.
- 白居易 著, 李瑋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각본. 명종 200년(1563).
-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1-5. 上海古籍出版社, 2008.
- 신민아. “元稹의 애정시 연구.” 『中國文化研究』 第20輯(2012). 47-69.
-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俞聖濬. “劉禹錫의 屈原 계승.” 『中國學研究』 第20輯(2001. 6). 183-203.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3-120.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95-118.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17-337.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